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핍박받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1월 9일 (토) 제 175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19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틀란틱, 데렉 톰슨, 미국교회 출석 감소 시작되게 한 3가지 사건 설명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교회 성장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하락세로 접어들게 된다. 바로 교회나 성당 등 종교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년스(Religious Nones)”들이다.

결국 2019년 바나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현재 미국인 중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64%일 정도로,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교회 성장 하락세는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도대체 1990년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지를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아틀란틱”의 데렉 톰슨(Derek Thompson)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해 30년 전 과연 어떠한 일들이 크리스천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준다(Three Decades Ago, America Lost Its Religion. Why?, “Not religious” has become a specific American identity—one that distinguishes secular, liberal whites from the conservative, evangelical right).

전통적으로, 미국은 세계 열강 중 유일하게 크리스천 인구가 대다수인 국가였다.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미국인 10명 중 9명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나 성당에 다니며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교회 출석율은 안정적이어서 1960년대의 ‘성-혁명’, 1970년대의 ‘방황과 격정’ 시대, 그리고 1980년대의 “탐욕은 선하다”는 시기에서도 교회는 난공 불락의 성채처럼,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구심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로 가면, 상황은 돌변한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교회나 성당에 등을 돌린 미국인들이 갑자기 늘뒀듯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어떠한 소속이나 유대를 가지지 않는 미국인들의 증가는 단순한 유행이나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만 교회 출석율 감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노틀담대학교 종교사회학



과, 크리스천 스미스(Christian Smith)는 미국인들이 기존 종교 틀 안에서 멀어지게 된 역사적 사건들로, 1)공화당과 기독교 우익의 연합 2)냉전시대의 종말 3)9.11테러 사건을 꼽는다.

먼저 2)와 3)을 설명하고, 1)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살펴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제국 구조권이 견제하는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미국인들의 신앙 고백은 유효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대량 살상 무기를 서로에게 겨누는 채 지구촌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군비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러한 냉전(Cold War)의 시대였다. 한반도의 분단을 포함해 인류를 양분했던 비극적인 대립 체제로서의 냉전은 이후 상대 진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경쟁, 그리고 자칫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른 핵전쟁의 위기까지 감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동서 냉전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붕괴와 구조권의 몰락이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끝냄으로써 종말을 고했다.

절대 악의 종말과 동서 냉전 종식으로 경건했던 미국인들은 나사가 풀린 채로 살

아가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미국의 지정학적 대적은 단지 구조권만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알라)을 두려워하고,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급진주의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구조권 다음으로 미국을 힘들게 했다. 수차례의 폭탄 테러 끝에 알-카에다는 미국의 심장 뉴욕 한복판에서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테러를 자행했다.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3면으로 계속)



준비된 리더가 그룹 성장시킨다! 리더십개발, 데이브얼리목사의 성공하는 소그룹리더십관 '준비' 소개

데이브 얼리(Dave Earley, 오하이오 제일침례교회 담임, 리버티대학교 목회리더십 조교수) 목사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12명의 교인과 시작한 제일침례교회를 현재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100개 이상의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로 수천 명의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소그룹 리더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8가지로 밝히고 있다. 8가지 노하우 중 “철저한 준비”만이 소그룹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리더 자신, 분위기, 모임일정 등 준비

“준비는 내 강점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소그룹 리더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평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그때그때 직감’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데이브 얼리 목사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는 그룹 모임을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리더십의 시작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기 위해 매주 준비를 해야 한다. 매주 준비를 함으로써 그 소그룹이 향상되며, 멤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노동계층이 민주화 이끈다



시론 이동진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3면으로 계속)

ATS와 ABHE 권위 인정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su.edu | (714)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청소년서적 / 영구 / 생애 학회 / 기증 / 교회용품 / 영안용품 / 영안기부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05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linnwood Terrace Parkersburg,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용품, 영성공역기, 생가독집 수천 개작, 탁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교회연합, 목사위임, 임직, 취임예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자라히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하심에 따라 동문교회와 언약교회가 동문교회로 연합하고, 고귀남 목사의 목사 위임예배와 인수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되신 동문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회개와 영혼구원의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나기게 하실 줄 믿고 정성을 다하여 드릴 예배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위임 : 고귀남 목사
집사인수 : 오정섭, 스킷주, 이진우, 최대영, 신정식
권사취임 : 이해숙, 안에스터, 민옥경

일시 : 2019년 11월 10일 (주일) 오후 3: 30
장소 : 동문교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213) 674 7447, (213) 820 0003

동문교회
고귀남 목사의 교우 일동

● 발행인 칼럼 ●

아시나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나는 영화 평론가였다.” “나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넜다.” “나는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나는 머리에 금이 간 적이 있다.” “나는 호주와 실제의 생년월일이 틀리다.” “나는 음악을 듣다가 운다(가끔).” “나는 어렸을 적에 방송국에 고정출연하였다.” “나는 한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람아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나를 비롯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리둥절했다. 지난 주 장로피택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곱 명의 장로피택자 부부와 우리 부부가 참여했던 1박2일 세미나에서 자기의 이야기 네 가지를 무기명(無記名)으로 적어 내면 사회자가 한사람씩 그 내용을 읽어줄 때 그 사람이 누구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맞히라는 게임이었다. 나는 장로피택자 부부를 대부분 20년 가까이 알아왔다. 또 그들은 서로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오며 20년 이상을 지내 온 이들이었다. 그런데 너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알아내는데 적잖이 시간이 걸렸고 끝까지 모르겠는 사람도 몇 있었다. 이야기 가운데 나쁜 짓을 하여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학생데모가 한창일 때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MT 다녀오다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사연(事緣) 등이 후에 따르기도 하였다.

미국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가. 그 미국생활의 연수(年數)와 미국을 잘 아는 것은 비례(比例)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6년 전 한국 생활을 다시 접고 미국으로 재차 오게 되었다. 그 때 나와 아내의 미국 운전면허증이 익스피어(expire) 되었다. 매일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도 계속 지내기가 불편했다. 뉴욕에서 다시 시험 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난감(難堪)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는 운전면허가 익스피어(expire) 된지 2년을 넘지 않으면 시력 검사 등 간단한 과정을 거쳐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법규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괜창고 아내를 살짝 그 기간이 넘었다. 나는 갱신된 면허증으로 휘파람 불며 여기저기 운전하며 다니는 동안 처녀 때부터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래 운전해왔던 아내는 악명(?) 높은 뉴욕면허를 처음부터 따기 위한 준비와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음악을 듣다가 운다(가끔)”은 내가 적어낸 것이다. 내가 우는 정확한 이유를 나도 모른다. 굳이 그 까닭을 헤아려본다면 그 음악을 만든 사람, 그 곡을 부르는 사람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닐까. 특히 많이 많이 들었던 “가시나무”는 언젠가 또 울며 들을 것 같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쉼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쉼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나는 다만 알고 그 당신을 너무나 몰랐기에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당신은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니 나는 가까웠던 사람들도 잘 몰랐고 하나님은 더더욱 잘 모르고 있었다. 아직도 미국을 잘 모르는 것은 덧붙이기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나의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그의 아픔과 외로움을 오늘도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가깝지 않았기에 이제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알아주어야 할 그를 오히려 여전히 외면하고도 새해를 맞겠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한데도 여전히 공허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은 아닐까.

노동계층이 민주화 이끈다!

워싱턴포스트, 오슬로 연구진의 노동계층과 민주화 성공 관련연구기고 보도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일부 노동자 계층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백래시(반발) 세력이 됐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백래시 세력은 경제적 세계화와 이민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이와 반대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 노동자들이 정말로 반민주주의 세력일까? 최근 연구에서 우리는 세계

150개 국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 노동자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도시 거주 중산층보다 오히려 더 중요했다. 공장 노동자들이 독재 정권에 대규모로 저항하기 시작하면, 뒤이어 민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We checked 100 years of protests in 150 countries. Here's what we learned about the working class and democracy: The success of mass protests depends on who is doing the protesting).

워싱턴포스트는 오슬로 평화연구/오슬로대학 연구진들의 '노동계층과 민주화 성공 관련 연구'에 대한 기고를 게재했다.

우, 특히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산업 노동자들은 특히 노조와 국제노조 및 사회민주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재정권에 강력한 도전을 안겼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정 유럽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보통선거권과 다당 경쟁 선거 도입에 있어 노조가 기여한 점을 강조한 기존 주요 연구들에 동의한다.

이런 사례의 경험들은 전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연구는 시위 참여자의 사회적 구성이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우리는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저항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 운동에 산업 노동자, 도시 중산층, 농민, 민족 집단, 종교 집단 등 누가 참여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가장 확고한 발견은 산업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저항운동이 다른 어떤 종류의 운동보다도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도시 중산층의 저항운동이 민주화와 연결돼 있다는 근거도 있지만, 산업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근거 보다는 약하다.



민주화 운동 성공 여부는 누가 저항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어 도시중산층 주도, 가능성 훨씬 높고 산업노동자들 경우 더 높아

근대사에서 각국의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대규모 저항을 조직했다. 때로는 그 시도가 성공을 거둔다. 현재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한 대규모 조직운동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세기 초반의 여성 참정권 운동, 30년 전 동유럽의 반공산주의 운동,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반정권 시위인 “아랍의 봄”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갈라진 각국의 운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대중운동이 언제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란의 사례처럼, 현재의 독재정권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 어

떤 운동은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어떤 운동은 실패해버리는 것일까? 우리 연구는 1900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반정권 저항운동을 비교해서, 민주화 운동의 성공 여부는 누가 저항에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위자들의 사회적 배경에 성공여부가 달려있었다. 시위자들이 중산층 시민인 경우일까, 아니면 공장 노동자, 공무원, 농민들인 경우일까?

저항 운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린다. 예를 들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아랍

의 봄 운동을 살펴보자. 2015년 노벨 평화상은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Tunisian National Dialogue Quartet)에 돌아갔다. 튀니지의 평화로운 민주화 이행 과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4자대화기구는 노조를 포함,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연대였다. 반면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은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전문직이라는 훨씬 작은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20세기에는 오로지 농민들로만 이루어진 저항운동도 있었다.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저항운동은 민주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집단에게 정권을 교체할 힘이나 민주주의를 실시할 동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 노동자들이 끼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도시 중산층이 주도하면 민주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산업 노동자들이 경우는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두 집단이 힘을 합하는 경

최근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부상에 대한 토론에서 노동자 계층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산업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19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면에서 계속)

그리고 모든 종교는 천성적으로 파괴적이라고 선동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알-카에다는 유용한 근거로 자리잡게 됐다.

냉전의 종말 그리고 9.11 사건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니던 미국인들이 교회를 등지게 한 중요 함수는 바로 정치와 종교의 결혼, 즉 공화당과 기독교 우익의 연합이다.

기독교 우익을 처음 정치무대로 유인한 것은 공화당이였다.

공화당은 1964년 배리 골드워터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참패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화당의 장래가 비참하리라는 판단 아래 당의 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짰다. 기독교 보수와 손을 잡게 되는 계기다. 공화당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기독교 우익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그 이전의 50년을 돌아보면 공화당은 열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4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의회는 24회기 중 두 차례 밖에 장악하지 못했다. 당의 기반 확충이 절실했다.

기독교 우익과는 공통점이 많다고 본 공화당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자들을 끌어들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도덕적다수(Moral Majority) 기독교도연합(Christian Coalition) 같은 조직을 이용하고 라디오 토크쇼와 설교를 통해서 보수의 정치 어젠다를 전파했다. 수백만에 이르는 유권자 집단을 확보함으로써 공화당은 그 후 실시된 여섯 번 대통령 선거에서 네 번 이겼고 상원의 12회 회기 중 7회, 하원은 10년간 내리 장악하는 성과를 올렸다.

공화당과 제휴한 기독교 우익은 90년대가 되면 당의 동반자에 만족하지 않고 당의 권력구조 장악에 나선다. 교회조직을 이용해 지방 카운티의 공화당 조직에서 시작해서 주 단위 당 중앙조직을 장악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성장한다. 공화당은 이제 기독교 우익의 의사에 반해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이제 공화당은 정치조직이라기보다는 종교 조직의 분위기를 풍긴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우익이 공화당 내에서 행사하는 역할이 커졌다.

미국에서 기독교 우익은 유권자는 7인 중 1인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들은 평균적으로 일반 시민보다 더 열심히 투표하고 정치적으로도 더 열성

적이어서 공화당의 정치적 어젠다를 결정하는데 참여해 그 영향력이 크다. 부시가 다수국민의 비판을 받는 이라크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 우익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2004년 대선에서 부시는 열세에 몰려있었는데 민주 공화 지지도 차이가 근소한 주에서 부시를 당선시켜 준 것은 기독교 우익의 조직적 힘이었다. 부시의 정치참모인 칼 로브가 기독교 우익 교회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표를 부시에게 몰아줘 그의 재선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정책이다. 낙태, 이혼, 동성애, 줄기세포연구, 환경 문제 등에서 기독교 우익의 주장은 절대적이다. 기독교 우익은 이 분야에서 민주당 좌파나 진보 세력과 대립한다. 선거에서 이들 기독교도들이 공화당에 투표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다.

결국 공화당과 기독교 우익의 결혼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젊은 진보주의자들이나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우익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고, 스미스교수는 분석한다. 한마디로 심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우익은 기독교의 간판을 내걸고 기독교를 욕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두테트는, 지난 2011년 "신권통치의 재탐방"이라는 칼럼에서 미국의 많은 리버럴과 교회회를 안 다니는 일반 시민들이 종교적 보수주의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우익을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로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일종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American Theocracy Revisited). 그 이유는 이 종교적 우익이 정상적인 정치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가 이러한 현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 우익에서 "복음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제하로 계속해서 시리즈를 연재하는 것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정치 영역에서 걸러내기 위한 사역인 것이다.

결론으로, 미국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과 누가 더 진보적인 사회주의자인 민주당 대선 후보들로 상징되는 극심한 양극화에 빠져있다. 2020년 대선 역시, 또 다시 보수와 진보 이념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때 좌우익을 아우르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우익과 공화당의 연합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준비된 리더가 그룹 성장시킨다!

(1면에서 계속)

데이브 얼리 목사는 "성공하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에서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리더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당신 자신을 준비하라.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다. 리더는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 나에게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요?
- 성령님께서 내 삶의 지배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 소그룹과 구성원들을 인도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

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둘째, 분위기를 준비하라.

분위기가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다. 소그룹 리더가 동시에 집주인이 아닌 것이 좋다. 당신이 집주인이든 아니든 간에, 책임지고 모임을 최대한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모임 장소는 깨끗하고 편안하고 넓어야 한다. 사람들이 들어와 모이는 동안 연주될 조용한 음악과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를 위한 찬양곡을 준비한다. 간단히 다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모임을 훨씬 더 편안하게 시작하는 것도 모임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셋째, 모임의 일정을 준비하라.

리더는 모임의 일정을 자세하게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가 나타난다. 당신이 이 시간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본다. 모임 일정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각 부분의 길이와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각 부분을 시작하고 마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임이 진행되게 만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제 시간에 모임을 마쳐야 한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컨트롤하여 멤버들

이 모임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리더가 잘 준비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 더 적어질 것이고, 사탄이 끼어들어 어지럽힐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든다. 또한 멤버들은 자연스럽게 그룹의 리더들이 인도하기를 기대한다. 리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알고 있다고 믿으면 대개는 기꺼이 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에 할애하는 시간을 근거로 그 일에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리더가 모임 준비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멤버들은 모임 참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소그룹 리더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준비 없이 한 주 한 주를 보내지 마라. 미래의 성공은 언제나 과거의 준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론

‘생명존엄(生命尊嚴)’을 회복한 감사의 자리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생명존엄(生命尊嚴)은 창조의 근간이다. 창조주의 손이 닿는 첫 순간부터 생명은 존엄한 존재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다. 이것은 인권(人權)문제 이전에 생명에 대한 선언이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모든 시대를 통해 변화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움직여온 숨은 손이 있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섭리(攝理)'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생명체로 이 세상에 등장한 인류는 그 섭리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와 같은 성장원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한 질서 안에서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어온 공통원리이다. 그런데 왜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귀엽다, 아름답다 라는 형용사로 표현하면서 인간은 자신들에 대해서만 큼은 '존엄(尊嚴)'이라는 유일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들려온 한 건의 뉴스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블롭'이라는 생명체, 학적 이름은 황색망사점근(Physarum polycephalum)라는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생명체가 지난달부터 프랑스 파리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다는 뉴스였다. 노란색의 끈끈한 액체처럼 보이는 블롭은 곰팡이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곰팡이 청소부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생명체이지만 아직 과학자들에게도 생소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생물학계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기관도 없고, 입도 더듬이도 촉수도 없는데 먹이를 찾고 소화시키는가 하면 학습능력도 가진 생명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지만 블롭을 생명체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 우선되는 시대이다.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여성인권이나 노동인권 등 인간의 기본권리는 느리지만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인권주의의 선봉에 선 것이 동성애라는 것은 사실 황당하면서도 전제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내세워놓고 대다수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인권침해를 말하는 이들은 과연 생명체의 근원과 그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존엄을 스스로 무시하고 서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아집 군단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존귀한 인간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동성애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인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의 선봉에 서있는 기독교인에게 동성애 주장은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언제 기독교 신앙이 인권을 무시한 적이 있는가?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것을 가르치며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변칙적이고 때론 변태적인 행위를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인간존엄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블롭이라는 생명체의 학습능력이 더 나은 것, 더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존엄한 생명체인 인간이 왜 변칙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내세우며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가? 기독교는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려는 불순한 의도 즉, 생명존엄이라는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 거부하며 인간존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려는 것이다. 단순히 판단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자기만족의 늪에 빠진 동성애행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의 법칙(rule)을 거스리는 반칙(反則)을 꾸짖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반칙으로 달려온 마라톤 선수에게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정코스를 벗어나 반칙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존엄성을 내던지는 것이기에 그 인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는 성경의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감사이다.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훼손의 이 시대 속에서 인간존엄의 본질적인 생명가치관을 갖고 사는 신앙의 자리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근원적인 감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TRACS 정회원

CHEA CIQG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증

학위과정	다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이벤트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히 11월 한달동안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추수감사오픈하우스

LA 확장강의실 (11월 25일, 월, 오후 7시)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529-4147)
 플러튼 본교 채플실 (11월 26일, 화, 오후 7시)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자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한다. 그것도 수년째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매일 평균 38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하니 굉장하다 싶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막고 싶다.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일까? 사람은 과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는 보도를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더불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싶다.

그런데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진행형으로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삶의 치열한 경쟁에 더욱 떠밀리고 있다. 그래서 경쟁에서

패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양산된다. 세상은 항상 1등을 요구한다. 그래서 2등은 간발의 차이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겹이 크다. 2등은 1등으로 올라서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로 이 시대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현실을 비판하여 스스로 잘못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신의 도성"에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로마의 테키우스 가문의 사람들은 로마군대를 구출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피로 신들의 노여움을 풀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신들에게 바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울 왕이 자살했고(삼상31:1-6), 아히도벨(삼하17:23), 그리고 가룟유다(마27:3-5)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못마시 듯 하는 존재임을 아셨다.

고로 잘못을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약속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행처럼 자살의 행위를 쫓고 있다. 하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어느 목사님은 자살하는 자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자살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화가 고흐가 너무 힘들어 자살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견디었다면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자살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그림은 평론가로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을 거절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누구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자의 수가 수억이라고 한다. 정자가 난자를 기막힌 확률로 만나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역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소명의 경중을 세상은 논하고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사로를 보라. 그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다. 온 몸에 피부병(피부암)으로 진물을 흘려야 했으므로 개들이 그 진물을 핥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이라면 썩는 냄새로 진동했을 것이다. 거기다 너무 가난하여 부자의 대문에 기대어 부자가 먹다 남은 부스르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이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혀를 차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비아냥거렸으나 그는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다.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

었다. 그는 진정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럼에 비해 부자는 세상에서는 성공하였는데 죽고 보니 실패한 인생이었다. 죽자마자 음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천국에 입성하느냐? 탈락하느냐로 구분된다. 그 때까지 그 누구도 성공과 실패를 논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조금만 참아오. 자살! 멈추세요. 우리에게는 진정 찬란한 내일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이웃은 많답니다. 셀 수 없이!! 더 나아가 당신의 자살은 남아있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를 평생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죽도록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견디세요. 오늘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살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귀안 목사
(뉴저지 세빛교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뉴 시를 갔다 온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늘 유난히 행복해 보이네요. 고기 많이 잡았나보죠' 문자 남편이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옆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거든.'

이러한 것이 행복과 기쁨일까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 학위, 물질, 힘과 권력 이러한 것들에 행복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행복의 조건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조건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에 외부 조건을 통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인생의 성공도, 건강도, 물질도 언제까지나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성공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즉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적고, 건강치 못하고, 학식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기도이자 유언

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인생 120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는 누가 진정한 행복한 자인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으로 하면 그들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보낸 광야 40년은 전쟁의 위험과 전갈과 야생동물들의 위협,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 등 어느 것 하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례와 출산 등 죽음과 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의 앞에는 요단강과 치열한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경 조건을 통해 볼 때 전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1.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신33:29).

저들이 행복한 이유를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질문법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이시기에 너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농아인 목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영락농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의 목사입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었고, 전쟁을 치루며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자라고 외친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행복한"의 단어 "아쉬레"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통한 행복은 순간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33:29).

모세는 구원을 받아서 행복할 뿐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칼이 되사 도와주시기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비틀거리며 일어나 걸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최소 몇 개월 지나야 겨우 목을 가누면서 뒤집기를 하고, 기어가고 일어서고 한두 발짝 걷게 됩니다.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런가요? 어른이라고 도움이 필요치 않나요? 모든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함께 할 때 더욱 힘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신33:26). 여기서 "여수론"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내려오는 것같이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바다를 건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혹 세상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요? 하나님은 의사 중의 의사요, 카운슬러 중에 카운슬러이십니다. 경영인 중에 경영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

HAPPINESS IS NOWHERE를 문장으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혀 지나요? HAPPINESS IS NOWHERE!(행복은 어디에도 없다)로 읽었나요? 아니면 HAPPINESS IS NOWHERE!(행복은 여기에 있다)로 읽었나요?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만 하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할 것을 레미콘 차로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하니 한 시간여 만에 다 마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때,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손으로만 하면 하루 종일해도 못하는 것을 한 시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데, 강력한 모터를 단 쾌속정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움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도우려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신33:29).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33장 29절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할 3:17-18)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신33:29).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기도로 전진하는 탈동성애자들의 모임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다!

미국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10월 30일),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rotunda)에서 이전에 동성애자였거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였던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기도모임을 가지는, 미국 역사상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이전 게이, 레즈비언이었던 사람들과 탈성전환자(이전에 트랜스젠더였던 사람)들은 지난 오바마 정부를 통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국가적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라이프스타일을 일반인들까지 따라하도록 선동할 뿐 아니라 성경이 확실하게 죄라고 말한 '동성애, 성전환(트랜스젠더)의 성향, 성적인 죄들을 어린 아이들 교육에까지 미 전역에 퍼뜨리며 "죄를 선"으로 둔갑시킨 죄와 어린이들에게 성적 죄를 짓도록 문을 곳곳에 열어 준 사악한 죄에 대하여, 지난 국가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혼돈된 영혼들의 치유를 함께 기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사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이전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였으며 주로 자신을 시도했었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자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올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정의를 성경이 정하신대로 회복시키는 정책에 앞장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지지에 더 힘입어, 이들은 할로윈 전야인 지난 수요일 밤에 모여 이전의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수많은 동성애의 성적 취향 죄들을 지울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한 국가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죄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혼돈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매우 중요한 기도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청을 가지고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년째 민주당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 100%가 적극적으로 밀어 부치며 법으로 규정지어려고 하는 "Equality Act-평등법"과 "Therapeutic Fraud Prevention Act-치료사기 방지법"이 제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시민들도 이 두 가지 법안에 절대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위의 두 가지 법안들은 이름만 화려하지 가정, 사회, 국가뿐 아니라 정작 동성애자들을 돕겠다고 만들어지

는 이 두 가지 법안들이 동성애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Tvnext 홈페이지에 Equality Act(평등법)과 "치료사기 방지법-캘리포니아와 대도시들이 밀고 있는 신앙의 자유통제법(기도 함)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의 진실을 비꼬고 왜곡한 주류 언론 미디어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에 대하여 NBC는 탈동성애 그룹이 "LG-BTQ 권리에 반대하는 로비"를 위해 DC에 왔다고 왜곡되게 선전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를 크게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모임의 목적은 NBC의 거짓뉴스와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동성애자

오랜 세월 동안 "남자"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회복된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짓된 정체성을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실수하셨다 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속이는 사람들의 눈에서 거짓으로 가려진 비늘들을 계속 떨어뜨려 버려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런 혼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 철저한 속임수에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간



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성애자로 돌아온 이들은 LGBT 이데올로기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키면서 치유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간증을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국회에서 올린 기도문을 몇 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의 죄, 성적 일탈의 죄, 우리를 오늘날의 곳으로 이끈 죄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의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동성애 라이프스타일, 동성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어둠을 밀어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오직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남자를 만들고 아내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진리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속임수의 커튼을 제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라고 한사람씩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은 기도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포로로 잡혀 구속된 자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 자유를 찾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대각성이 속히 다시 생겨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국회의사당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생명 존엄성 챔피언과 종교적 자유의 수호자들인 미국 하원의원 Doug LaMalfa(R-CA)와 Louie Gohmert(R-TX)의 인도로 역사적인 건물을 둘러본 후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강렬한 기도와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탈동성애자들처럼 정체성의 혼돈과 속임수에 넘어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인터넷 영화와 동영상을 통해 성적 충동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천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청년의 정욕과 성적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에 내가 성범죄의 죄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문 집사

A: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하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아이오와 주에 사는 중년의 유부녀가 우연히 그 마을에 들른 매력적인 사진작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중년의 사랑을 그리면서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엄연히 혼외정사를 불륜입니다. 오늘날 TV드라마나 영화들의 대부분이 혼외 로맨스를 마치 멋있는 사랑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삶속에는 인터넷이나 이성을 통한 성적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적 유혹은 잠시 달콤할 뿐 그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성범죄는 신앙과 상극이요 성령충만과 상극입니다. 성범죄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침체가 찾아옵니다.

성범죄에 빠지면 첫째, 먼저 양심과 영혼이 파괴됩니다. 크리스천이 성적 범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심히 슬퍼하시고 근심합니다. 마음에 놀리는 죄책감이 찾아오고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가 파괴됩니다. 현재 알려진 무서운 성병만도 종류가 60개가 넘는데 미국에서는 매일 4만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문란한 성생

성범죄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침체 온다

활을 통해 성병 바이러스에 접촉한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미국인 4명중에 한 명이 성병환자가 됩니다. 미국 외과대학병원의 통계에 의하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남편을 둔 부인들은 Cervical Cancer 즉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5-11배 높다고 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수의 말에 따르면 바람둥이의 남편을 둔 여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암세포를 배달해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됩니다. 서울의 통계로 보면 하루 결혼이 223건인데 이혼신고자 하루 71건이라고 합니다. 서울 이혼율이 30%를 넘는다고 하는데 주된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적 방종이 가정파괴의 주범입니다. 미국은 10대 소녀들이 매년 100만명이 임신하고 그 중에 40만 정도가 낙태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만명 정도가 아버지 없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중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마약, 매춘, 살인, 강도 등의 범죄로 감옥에 수감되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아버지 없이 자라난 성장배경을 가집니다. 미국에서는 1,2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낙태수술로 사라지는데 이중 대부분이 뚜렷치 못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은 성 문제입니다. 불은 난로라는 장소에 제한되어 있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 불이 난로 밖으로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튀면 금방 파괴의 도구로 돌변합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동부 브힐(EASTERN BHIL)

브 힐(Bhil)은 2개 지역으로 분리한다. 중부 또는 "순" 브 힐(Pure-Bhil)과 동부 또는 라주 푸트 브힐(part-Rajput Bhil)이다. 동부 브힐족들은 인도의 중서부 산맥에서 살고 있다. 특히 북부 구자라트(Gujarat), 남부 라자스탄(Rajasthan), 그리고 북부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구자라티(Gujarati)족과 라자스타니(Rajasthani)족 사이를 연결하는 인도의 부



족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인도아리아인(Indo-Aryan)어인 하나인 데왈리 빌리(Dehwali Bhilli) 언어를 말한다. 초기에 브힐 왕(rajas)은 평원지대에서 구릉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그들의 독립과 통치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브힐족은 모갈스(Moghals)족들이나 마라타(Marathat)족 그리고 영국인들과 대적해 전투를 벌였다. 1947년까지 "브힐족의 살해(the Bhil kill)"로 유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브힐족은 사르다 사라보 댐 공사계획(Sardar Saravor Dam Project)으로 인해 공포심을 갖고 있

다. 댐이 완성되면 브힐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몰된다. 새로운 정착 계획이 논의되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삶의 모습

오늘날 브힐족은 주로 소작 농업, 막노동, 촌락의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농지가 점점 적어지고 일 반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다루는데 선수들이다. 사실 브힐이란 말은 빌리("Billee" 활)란 단어에서 유래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은 부족의 독특한 무기였다. 보통 남성들의 행사 때 활과 화살을 소지한다. 여성들은 진한 청색이나 검은 사리(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천)안에 브라우 셔츠를 입는다. 도시의 청년들은 머리에 헝겊으로 매고 귀걸이를 달고 칼이나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힌두인들과 구별된다. 동부의 브힐족은 보통 부끄럼을 잘 타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즐긴다. 축제, 춤, 연극 그리고 음악은 그들의 폭넓은 문화지만 불행히도 이 행사기간 중 엄청난 술이 소비된다. 브힐족들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결혼한다. 만약 타 계층과 결혼하게 되면 하위계층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상류층으로 전위된다. 이런 관습은 부족 내에서 엄격히 강요되고 있다. 각 촌락은 논쟁을 해결하는 우두머리가 있다. 가족들 간에 존경심이 강하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교감이 있다. 재산의 분배는 동등하게 아들들에게 돌아간다. 브힐 촌락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가족들은 수수,

옥수수, 밀과 보리가 자라는 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가지로 잘 엮어서 만든 잘 정돈된 집에서 살고 있다. 지붕(별집모양)은 보통 흙으로 만든 타일을 쓰고 있지만 가끔 벗집과 나뭇잎으로 만든다.

신앙

동부 브힐족은 거의 대부분 힌두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토속종교를 믿고 있다. 쉬바(Shiva)는 대신이다. 조상숭배 또한 매우 대중적이다. 샤만(Shamans 무당)이 만신들과 흙 우상에게 제물을 놓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이들의 이방신앙에도 불구하고 상위 카스트인 바("Bhagat") 힌두교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가 죽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복서

지방에 대가뭉이 들것이라 경고했다. 그다음 그들은 북서 지방에서 온 분들에게 참구원의 길을 성경에서 값없이 가르칠 선생들을 찾아야 하며, 그들은 참 하나님과 동정녀에게서 난 죄 없이 성육신한 자에 관한 것을 가르칠 것이며, 그 힌두교부는 계속해서 또한 돌들과 우상을 버리고 이 죄 없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뭉은 1899-1900년 그 교부가 죽은 바로 즉시 발생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오늘날 6개 선교기관이 이 부족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2천6백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는 인구의 0.1%뿐이다. 많은 중보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인기 낮지만 호황 이어지면 재선확률 높다"

스티븐 안솔라베흐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내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낮지만, 미국 경제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매우 이른 시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대선 결과가 미국 경제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솔라베흐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솔라베흐 교수는 미국 정치학자 중에서 선거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현재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 미 CBS방송의 선거방송 자문위원이다. 그는 1989년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UCLA와 MIT대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하버드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다른 길...

트위터가 모든 정치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확산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소셜미디어 정치광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터였다. 이는 페이스북이 최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용상 오류가 있더라도 정치 광고를 걸러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우리는 전세계에서 트위터를 통한 모든 정치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서 정치적 메시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리트윗할 때 도달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런 결정이 돈(광고)에 의해 위협받아서 안 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정치 광고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제에 자발적으로 접근하고 논의하는 것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도시 CEO는 "인터넷 광고는 상업 광고주들에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매우 효과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선거에도 작용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고 호도하는 정보, 딥페이크 등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다 전향적인 정치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대선 등 선거 관련 광고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치적 이슈 광고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광고가 결국 '후보자 광고 중단'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투표를 독려하거나 정치인이 트위터로 견해를 전파하는 등 예외는 허용할 계획이다.

트위터는 정치 광고 중단 정책을 11월 22일부

터 시행할 예정이며, 같은 달 15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트위터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대표적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대조적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최근 미 하원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며 허위 내용을 담은 정치 광고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비판은 물론, 일부 페이스북 직원들은 저커버그 CEO와 임원들에게 "정치인 광고에 대한 현 팩트체크 정책은 페이스북이 상징하는 가치를 위협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트위터의 결정은 공화당에서의 반발을 즉각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 책임자인 브래드 파스칼은 "트위터의 결정은 보수주의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또 다른 시도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공화당을 공격하려는 진보 진영의 광고도 막을 것이냐"라고 성명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길거리 전도 프로젝트 '붓소앤섬 시즌2'

지난 5월 유튜브 KNOCK 채널을 통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붓소앤섬'이 오는 1일 시즌 2로 돌아왔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청년 '조셉 붓소'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은 '붓소앤섬'은 크리스천에게는 전도의 도전을, 비기독교인에게는 복음의 감동을 전한다. '붓소앤섬 시즌2'는 시청자 참여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조셉의 모습에 도전받은 시청자들이 직접 그의 동역자로 나서기도 하고 버스킹 위상에 함께 할 수도 있다.



거리 전도에 동참한 황하은씨는 "하나님만 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붓소앤섬'에 큰 은혜를 받았다"며 함께 하는 이유를 밝혔다. 찬양사역자를 꿈꾸는 여고생 이하영 양은 "'붓소앤섬' 촬영을 함께 하며 전도가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다"면서 "거리 전도 참여를 통해 전도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셉의 버스킹 위상은 2일 토요일 오후 1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버스킹 존1에서 진행된다. 버스킹 위상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시청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셉의 찬양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붓소앤섬'은 CGNTV 채널을 통해 매주 주일 오전 11시 10분 방송된다. 유튜브는 'KNOCK' 채널 구독 후 시청이 가능하다.

피플리머 쓰러진 7살...헬리콥터 침묵

시카고에서 헬리콥터(헬로인) 축제를 즐기던 7살 여자아이가 총을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시카고 트리뷴 등 미국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시카고 리틀 빌리지의 한 거리에서 7살 아이가 가슴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치

명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와 함께 다친 30살의 남성은 많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헬리콥터를 즐기던 인파가 거리를 걸을 때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남성이 한 남성을 쫓아갔고, 무리 중 한 명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가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시카고 트리뷴에 "4발의 총소리를 들었다"며 "한 남성이 '딸이 총에 맞았다'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총에 맞은 아이와 가족을 가게로 피신시켰던 이 여성은 아이의 출혈을 막기 위해 총상 부위를 누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호박벌 의상을 입고, 사탕을 받는 헬리콥터 축제를 가족과 즐기던 중이었다.

버즈피드는 이날 총격 사고 당사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헬리콥터 축제를 즐기려는 듯 얼굴에 가면 쓴 젊은 남성들이 줄지어 달려가더니,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

전재 과시 IS '말리테러는 우리 소행'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잃은 이슬람국가(IS)가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1일 발생한 대량살상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바그다디의 제거 사실을 떠벌리며 세계 전역에서 IS 패퇴를 선언했지만 정작 IS는 말리 외곽 군사기지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며 자신들의 회복력과 아프리카 전역에 뻗어있는 영향력을 과시했다.



IS는 2일 선전 매체를 통해 말리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테러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IS 측은 "칼리프의 병사들이 변절자 말리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프랑스군 호송차에도 폭발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말리 군 당국은 "테러로 말리군 4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말리 북동부 메나카 지역을 지나가던 프랑스군을 겨냥한 추가 테러도 사망자를 낳았다. 프랑스 국방부는 "무장차량이 급조 폭발물과 부딪히면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군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서아프리카 사헬지대(사하라사막 이남 지역)로 불린다. 알카에다와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미군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서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병력은 1만1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무장단체의 테러 공격으로 9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절반가량은 서아프리카에서 나왔다. 특히 말리의 경우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2012년 북부를 장악한 뒤 잦은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9월에도 부르키나파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리 군 기지에서 테러가 발생해 군인 38명이 숨졌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공격은 알카에다·IS와 연계된 무장세력이 여전히 말리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피의 표식"이라고 전했다. 수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IS의 세력은 견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러라는 것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 지역의 빈곤, 만연한 불안, 인종적 차이에 기반한 착취,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행태가 IS 등 무장세력의 창궐을 추동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지역의 문제들이 IS가 2014년 시리아와 이

라크 등지에서 유사 국가기구를 세울 수 있게 만들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WP에 "자칫 빈곤과 착취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IS가 재결집하는 일을 오히려 돕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은 단순히 무력을 쓰는 일을 넘어서 최근에는 말리 내부 부족 갈등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사이에 파고드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WP의 서아프리카지부 국장인 다니엘 파켓은 "알카에다·IS와 연계된 전투원들은 말리 내부 풀라니족과 도곤족 사이 오랜 갈등을 부추겨 싸우게 만든 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역제안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곤족 자경단에 의한 풀라니족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4월 사임한 수메일로 부베에 마이가 전 말리 총리는 당시 WP에 "미국은 중동에서 그러했듯 사헬 지역 문제에도 똑같이 개입해야 한다"며 "이제 말리의 안보가 국제안보의 핵심 키가 됐다"고 경고했다.

"1919년 상하이 미화서관은 독립의..."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해 중국 상하이 미화서관(美華書館)에 있던 로리기념교회가 독립운동가들의 연설회와 예배가 진행됐던 해방공간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2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연 정기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해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통해서다.

미화서관은 당시 상하이 북경로 18호에 있던 미국북장로교 출판사였다. 중국 전체에서 가장 컸던 출판사로 기독교와 일반 서적 출판을 비롯해 선교사들에게 숙소까지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상하이한인교회는 1919년 3월부터 6-7개월 가장 출판사 마당에 있던 로리기념교회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던 시기과 맞닿아있어 이 공간과 독립운동가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역사학계의 공감대다.

이 교수는 "상하이한인교회가 빌려 사용하던 로리기념교회는 예배처소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강연과 인성학교(한인학교) 졸업식, 한인 대령집회 등에 폭넓게 활용됐다"면서 "임시정부 초기 교민과 독립운동 단체들이 수시로 연설회도 열었다"고 했다. 그는 "1919년 5월 26일 상하이에서 갖 도착한 안창호의 연설이 개최됐던 곳도 바로 로리기념교회였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일본의교사료관자료도 인용했다. 일본측 사료에는 "조선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 하버로 232호에 설치하였다. 그 비밀 인쇄소는 북경로 18호에 있고..."라고 기록돼 있다. 임시정부와 북경로 18호에 있던 미화서관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하이한인교회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예배 장소를 '하버로 강령리 교민단체사무소'로 옮긴 이유도 드러났다. 이 교수는 "가옥세까지 내야 했고 훨씬 비좁았던 공간으로 이전한 건 1920년 5월 미화서관이 매각됐기 때문"이라면 "1920년 2월 인성학교의 '소년극'이 로리기념교회에서 열린 이후로 더 이상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1919년 상하이한인교회가 빌려 사용했던 예배 공간의 위치는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국민일보가 지난 4월 12일 '상해한인교회, 1919년 자리잡은 터 찾았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밝혀졌다.

개혁

개혁이란 기준이 제도 또는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 성공한 개혁을 위하여 반드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의지이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전환의 시대'가 수없이 등장하였다. 매번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자들의 주장이 거부되었거나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에 따라 과거를 지향하는 고집스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개혁' 하면 가장 먼저 16세기 종교개혁이 떠오를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환의 시대'에 개혁을 외쳤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칼로 과일을 자르듯 단번에 이뤄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개혁이란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적인 사상이나 상대를 비판하는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다. 초지일관 개혁을 주도하는 힘은 '자기성찰', 즉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안목에 있다.

에라스무스

데시 데이위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성직자였다. 그는 남다른 아픔을 지녔던 자였다. 그의 부친은 당대 인문주의교육을 받은 자였고 모친은 외과의사의 딸이지만 약혼관계의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신분을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헤라스무스'였지만 1503년에 '에라스무스'로 고쳤다. 또한 1506년경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데시데리우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개혁을 논하면서 에라스무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중세교회의 개혁을 간절히 원했던 인물이었다. 에라스무스는 1583년 11월에 태어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보다 17살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는 루터를 포함한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활동 내용, 그리고 로마교회의 반응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회의 중요한 '전환의 시대'에 활동했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과 힘을 합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에라스무스가 한때

루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1517년 95개 조항을 내세운 루터에게 강요하였을 때, 그는 교회 고위직자에게 루터를 옹호하는 편지를 보냈다. 무턱대고 루터를 지지하려거나 그의 편에서 교회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루터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가진 채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를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를 내릴 것을 바라며 기대했던 것이다.

소속의 중요성

에라스무스의 태도에 대해 교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개혁자들

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학논쟁이 있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 '노예의지론'을 새롭게 저술한 것이다. 자신의 신학적 견해가 루터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은 에라스무스에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다. 결국 1526년 그는 루터의 개혁의 흐름을 공격하는 글을 썼다. 이로써 자신은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구교에 소속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알린 것이다.

객관적 평가

현재 에라스무스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구교는 교회를 거부하고 분리시키려고 한 자로, 신교는 개혁적 사상을 감추고 공개적으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가 후대교회에 남겨준 위대한 영적유산은 묵과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닌 중세말 르네상스이다. 그는 인문주의자였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꽃을 피웠다. 고전연구를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세속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에 북부 유럽으로 옮겨지면서 르네상스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정신으로의 복귀를 목격하는 강한 종교적 운동으로 변하였다.

화란에서 태어난 에라스무스는 자연히 북유럽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가 어려서 공동생활

과감히 배척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될 것을 요구하였다. 에라스무스가 토마스 아 켈피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 분명하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북부유럽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만큼 이탈리아 르네상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1492년 사제로 서품을 받고 교구장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교황청과의 관계를 위해 라틴어 문체가 뛰어난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라틴어와 라틴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온 결과였다.

그 후 교구장이 허락하여 에라스무스는 파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고대 세속 문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 후 1499년에 영국으로 가서 인문주의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가 있었다. 헬라어에 능통하였으며 영국에 있는 동안 주로 그의 집에 거거하였다.

또한 존 콜렛(John Colet, 1466-1519)은 성경해석학에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었다. 그는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세교회와 달리 본문과 저자에 강조점을 두었다.

에라스무스는 콜렛을 통해서 성경신학이 지닌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콜렛의 무능력을 통해 성경언어에 대한 중요성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결과 헬라어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1500년에 출판된 후 계속 개정판을 낸 '금언집'을 통해 헬라어 실력이 늘어났는데, 이 책에는 헬라어자들의 금언을 발췌함으로써 고전인용구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속적으로 에라스무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516년 그 유명한 '헬라어 신약성경'이 출판되었다. 19세기까지도 학계에서 공인된 권위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된 후부터 교회가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그 후 그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번화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우신예찬'

'우신예찬'은 에라스무스의 개혁사상이 담겨져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그는 국가 또는 교회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개혁될 때, 전체 사회가 개혁될 것으로 믿었다.

(12면으로 계속)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9)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의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에라스무스가 요구하는 관용적 태도를 수용할 여지가 없었다. 아무리 작은

로 부인한 자료 간주한다. 결국 그는 역사의 광야에 외톨이로 서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실 개신교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형제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받은 기초교육이 평생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동생활형제단은 북 르네상스의 열매 중 하나로서, '새로운

개혁과 구교 사이에 선 에라스무스, 역사의 광야에 남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개혁 위해 최선 다해

것이라도 개혁의 불씨를 끄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기 때문이다. 교회의 방침에 고개를 숙여 순종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내뱉는 에라스무스를 향해 경계하는 태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16세기 개혁자들이 그를 '동지'로 여겼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교회의 개혁을 갈망하던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등장을 환영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개혁운동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루터와 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현재 자신이 소속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루터가 1520년에 저술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반박하는 '자유지론'

보이지 않았던 구교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던 16세기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에라스무스는 그다지 현명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오직 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 에라스무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은 걸음을 하지 않은 그가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의 개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에라스무스에

헌신(Devotio Moderna)'을 강조하며 경건한 삶을 우선순위로 삼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신학자임을 잊지 않았으며 언제나 내면이 충실한 영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1501년에 저술된 '기독교 군사의 단검'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는 영적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성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알면 기도가 더 분명해진다고 확신하였다. 나아가서 고전문헌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피라고 권한다.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신을 알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생활형제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외적이며 형식적인 것을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braith, Montgomery, Bucks County, Benelux, Boston, Salt Lake, etc.

리더십 코멘터리 (99)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심장의 고통처럼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리더가 되라

감사는 선택이다

2013년 개봉한 영화 '그래비티(Gravity)'는 우리가 평소에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일깨워주는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주에서 우주선을 수리하다가 재난을 당한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평소 우리가 숨 쉬는 것, 흙을 밟고 있는 것, 걸어 다니는 것 등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삼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중력'이란 뜻의 영화 타이틀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잡아당기는 삶의 모든 짐들마저 오히려 감사로 다가온다. 영화 속의 명대사인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선택이야"라는 말이 감사의 계절에 마음에 와 닿는다.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감사는 꽃과 같다. 리더가 하는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고 꽃이 피는 곳에 나비와 벌이 찾아와 춤을 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감사에 관한 인간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감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품 차를 타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도 감사를 모른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리더십의 위기는 작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와 감사는 선택이요 인격적인 결단,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잃은 리더는 모든 것을 잃는다

스필겐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말을 남겼다. 리더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위기는 작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감사가 없는 리더는 위험하다. 교회의 위기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 어리석은 리더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리더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

겸손한 리더는 항상 배우고 지혜로운 리더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한다. 교만은 감사의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탐욕의 안경을 쓴 리더의 눈에는 부족함만 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쓴 리더의 눈에는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감사는 Thanks로 사례한 후

다. 세상에는 본능적인 인간이 있고 거듭난 은혜의 인간이 있다.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 리더는 육에 속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부로 감사하는 사람들인데, 일이 잘되고 행동하면 감사하고 잘 안되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얇은 물에서 헤매며 깊은 믿음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참된 영적리더는 돈, 지식, 명예, 건강보다 더 좋은 나라가 예비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셋째로,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성숙한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는 얻은 것과 잃은 것이 항상 반복되게 마련이다. 비즈니스가 잘 될 때가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반복되는 세상이다. 참된 리더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리더가 가져야 할 감사의 리더십 원칙

아프리카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이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악성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때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한지 한 달 동안 본부에서 선교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였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자 선교지원금이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잘하였다.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처음 한 달 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간증하였다. "선교지원금이 오지 않아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보고를 들은 한 의사가 선교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건강해지셨습니다. 만약에 본국에 계셨으면 악성위궤양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악성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지원금을 한 달이나 지연시키셨습니다."

감사는 어렵고, 불평은 쉽다.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늘 베풀면서 베풀 수 있어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고 또 받아도 불평한다. 리더가 가져야 할 감사의 리더십 원칙은 이렇게 시작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채워지고,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게 채워지고, 고통 중에 감사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자존심의 상처

월요일 아침이다. 모처럼 서늘한 아침공기와 파스한 햇살이 엉겨 새로운 생명력을 뿜어낸다. 주일 내내 교회 안에 머물던 시선과 에너지를 오늘은 밖으로 돌려 하늘과 나무와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바라보며 기운을 얻는다. 날씨가 너무 좋다. 가을의 한 복판에 성큼 들어섰다.

사람은 자기에게만 준 것을 더 고마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물과 공기와 태양...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일상도 매일 보는 사람에게는 별로 감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 안에 가득 움크리고 있는 이 이기심이 사그라지지 않는 한, 잘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기심이 바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는데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하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마치 지뢰를 밟지 않으려는 군인들처럼 너무도 조심하 다가간다. 그러다 만의 하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금세 관계는 깨지고 불편해진다. 아니,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삶의 의욕마저 다 잃어버리는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자신의 권위의 상징이므로 살면서 참된 스승을 만나기 힘들 것 같다. 그렇다. 우리가 많이 겪는 불안과 조조 스트레스는 다분히 이 자존심의 상처에서 오리라.

우리 안에 욕망을 다 없애려는 것은 마치 바다위에 파도를 없애려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차라리 욕망을 다 없애기보다는 파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 욕망을 잘 다스리면 그 욕망은 어떤 삶의 의욕과 열정이 되어 새로움과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을까?

진리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이 좀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가야 집이 보이듯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 밖으로 나가 들여다보면 내 생각에 또 속아 살았다는 분함은 올라오리라. 그래서 늘 못한다는 생각, 아프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그것은 어쩌면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목동이 아닐까?

그렇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란 그저 바람처럼 사는 삶이 아닐까?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이 높은 산도 자랄만한 어둠의 골짜기도 다 넘어가 버리는 바람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받아들이며 진득거리는 욕망도 없이 그저 하늘에 귀를 대고 바람처럼 사는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 어떤 글에서 작은 사람이 아름답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말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 긴 이력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그냥 보여지는 삶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인격이란 성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바닥으로 사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말이 아닐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40(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김홍), (917)373-3411 46-40 162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7:30</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자기의 이름을 ‘마더사’라 말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성씨가 ‘마’씨가 아니고 본래 이름이 ‘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 할 때에 자주 ‘마더사’라 소개하는데 그의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해석하여 ‘마누라 덕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설명인 듯 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신실한 마누라의 기도와 내조의 덕으로 잘

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누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패가 망신 하는 경우들도 많음을 보면서 아내를 잘 만나서 마누라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남자들의 행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이름을 ‘남덕사’라 말하는 아내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해봅시다. ‘남편에 덕에 사는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때문에 울고 불행해 하는 아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감사의 계절 11월에 나로 인해 감사하고 나로 인해 행복해 하고 나로 인해 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도록 살아야겠다는 작은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주덕사’란 말이

맞는 사람이란 생각도 듭니다. ‘주님 덕분에 사는 사람’ 말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이 가을을 사노라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덕분이며 주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려는 오 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주덕사’의 자기 고백이 있 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불러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고 절망 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Name of Jesus). 성경은 우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

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온갖 절실한 상황에서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을 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건짐을 받게 됩니다. 혹 하나님의 죄와 형벌의 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우리 주님은 용서 하여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혹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풍랑과 인생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덕’란 자기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절대 저버리 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우리가 부를 때 못 들은 척 하지 않으 십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부축할지라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적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자 영원자 관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애원하고 간구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덕사’라고 고백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킹덤비전” 주제

제 12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킷넷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킷넷(대표회장 호성기 목사)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홍 목사(킷넷 이사장)는 “제12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초교파적 동역과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를 위해 창립된 킷넷은 북미주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사역을 감당해왔다”고 말했다.



킷넷주제 제12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가 열렸다. 사진우측은 첫날 저녁집회에서 호성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한 목사는 “이번 대회는 2세 선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비전을 나누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한 킹덤 비전’을 주제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킹덤 비전을 갖게 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킹덤 마인드로 연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 갖는 선교전략 모임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호성기 목사는 환영사에서 “킷넷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터닝포인트에 서있다. 이번 대회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서로 성경적으로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나누며 깨닫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 사회로 열린 첫날 집회는 송제임스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가 기도했으며 은해장로성가단이 특송 했다. 이어 김현철 선교사(도미니카공화국)가 선교보고를 했으며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 담임)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12)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이어 최빅토리아 목사가 북한과 한국을 위한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번 기도성회는 조갑진 목사(국가기독교운동 대표)가 화요일 아침설교를 했으며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송상철 목사(아틀란타 새한장로교회)가 ‘킹덤마인드’가 만들어내는 사역적 비전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강의를 했다. 이어 강순영 목사(자마대표) 사회로 패널 토의가 있었으며 유영기 목사, 김호성 목사, 배종일 선교사, 이여호수야 선교사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오후강의는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가 ‘킹덤 마인드로 만들어가는 목회적 비전’,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가 ‘영성으로 이루어내는 사역의 열매’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으며 오후패널토의는 장영호 선교사 사회로 열려 고훈 목사, 이상훈 목사, 권중승 선교사, 서명준 선교사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저녁 집회는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가 설교자로 나서 ‘기도로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안사무엘 목사가 북미, 중남미, 유럽을 위한 기도를 인

도했다. 수요일 오전은 박바울 선교사(이집트)가 아침설교를 했으며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윤모세 목사(UBF국제대표)와 서병용 목사(UBF)가 ‘킹덤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아침강의를 했으며 김다윗 선교사 사회 송성자 목사, 양태철 목사, 조나단 선교사, 김정환 선교사가 패널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패널 토의했다. 오후강의는 오석환 목사(KAGMA CGO)가 ‘연합 사역에 존재하는 장애물과 제거방법’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정민용 목사(케버넌트 펠로십 교회)가 ‘킹덤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오후 강의를 했다. 이어 이운무 목사가 전체제제도를 인도했다. 저녁집회는 한기홍 목사가 ‘킹덤마인드로 연합하여 선교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선포를 했으며 이미 총무가 아시아, 중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인도를 했다. 이번 대회는 선교보고를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김현철 선교사(산타도밍고), 정도연 선교사(태국), 황선규 선교사(GSM 국제대표)가 선교보고 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에서 미주장신대서도이사가 공연하고 있다. 사진 우측아래는 이날 인사말을 전한 이상명 총장

선교적 사명 갖고 하나님의 인재 키운다

미주장신대 개교42주년 기념 2019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개교 42주년 기념 2019 후원의 밤이 4일 오후 6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EM채플실에서 열렸다. 이상명 총장은 “지난 2008년 미주장신 총장으로 취임한 후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

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신학교는 총장이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했다. 이 총장은 “미주장신은 42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미주장신은 디아스포라에 세운 한인신학교다. 학교를

통해 앞으로 펼쳐나갈 선교적 사명을 가진 아름다운 학교다.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선교적 영상과 목회로 선교적 영역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킬 하나님 관심과 애정,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되길 소망 한다”고 말했다. 미주장신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학교소개 영상, 이상명 총장 인사말, 박태석 목사 특송으로 이어졌고, 재학생들이 생활사투리 콘트를 공연했다. 이어서 이규하 학우(M.Div)가 간증했다. 이어 PTSA비전메이커 영상 소개가 있었으며 미주장신서트라이어(지휘 조혜정 교수) 공연이 있었다. 이날 후원의 밤은 강우중 교수(원격교육원 디렉터)가 후원 헌금 요청메시지를 전한 후 유영기 목사(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신설기금 후원의 밤이 2일 오후 6시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복음 전하는 또 다른 선교현장...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신설기금 후원의 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신설기금 후원의 밤이 2일 오후 6시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월드미션대학교는 세계선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해 30년 전에 세워졌으며 개교 30주년을 맞아 그 지경을 넓히고자 간호학과를 신설했다. 월드미션대는 한인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다민족 학교로 발전하고 있고 한인교에 더불어 아프리카 중국 라틴학교에게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가을학기 신입생 150명,

재학생 450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이익으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지만 기독교정신을 갖고 환자들을 돌볼 기독교인이 부족하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그들을 돌볼 간호사 양육하기 위해 간호학과를 설립했다. 간호사들이 세게 될 병원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선교현장이기에 간호과 설립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소희 동문 사회로 열린 후원의 밤은 임성진 총장이 환영사, 김지훈 부총장이 만찬을 위한 기도를 했다. 만찬에 이어 공연이 있었는데 제프 콜레라스 클래식재즈트리오(보컬 캐티 애덤스, 피아노 제프 콜레라스, 드럼 캔달 케이, 베이스 푸터스미스)가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간호학과 소개 및 비전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간호학과 영상소개가 있었으며 오정기 교수가 ‘21세기 간호교육에 있어서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비전제어를 한 뒤 이금희 교수가 1110기부 릴레이 안내를 했다. 또 감사와 나눔 시간으로 이어져 김석찬 동문과 이상미 동문에게 감사패를, 김학승 동문에게 장한 동문상이 수여됐으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표로 최은형에게 임동선 설립자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후원의 밤은 윤성환 이사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회 선교박람회 및 선교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1개국 선교사들 딜러십 신청

제 2회 KWMO 선교박람회 선교포럼

제 2회 세계선교기회운동(KWMO) 선교박람회 및 선교포럼이 지난 10월 31일 GMAN(대표 김정환 선교사)에

서 열려 11월 7일까지 개최됐다. 김정환 선교사는 “제 1회 박람회 당시 선교의 실행할 수 있

는 플랜 3가지와 전문영역이 발표됐으며 한글, 농업선교, 병동선교가 발표됐다”며 “선교지에 필요한 부분과 선교사에게 자립선교의 기틀을 마련해주자 무역법도 이번에 강기가 된다. 그리고 21개국의 선교사들이 딜러십을 신청했으며 그중 7국가에서 선교사가 왔다. 또한 은퇴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사역할 수 있게 황금기 선교운동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혜식 선교사 찬양인도 후 김정환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손예원 자매가 해금 특주를 했으며 에스더정 선교사(KWMO 여성분과위원장) 기도, 김정환 선교사가 ‘기적중의 기적’(눅5:1-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김상기 목사의 환영사, 최찬영 선교사의 격려사와 축복기도로 마쳤다. 이번 선교박람회 선교포럼은 ‘사도행전 교회의 선교전략적 모델들’, ‘선교역사가 보여주는 전략적 모델들’, ‘한국교회 선교 잠재력과 현실’, ‘자원개발 전략’, ‘BAM’, ‘무역법’, ‘냉동사업의 전망’, ‘솔라 전기원리’, ‘솔라 저온 창고의 사업특성’, ‘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원리’, ‘솔라 컨테이너 저온창고 관리’, ‘A/S 사업전망’, ‘현지 A/S의 중요성’, ‘현지인 A/S기술교육’, ‘현지 딜러십 사업전망 토의’ 등에 대해 강기가 진행됐으며 이운무 선교사, 김정환 선교사, 김상기 목사, 정순탄 집사가 감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CBSN 개국 5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CBSN 개국 5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

뉴욕기독교방송(CBSN, 사장 문석진 목사)은 10월 29일 오후 8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국 5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를 가졌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2014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설립된 CBSN은 설교와 찬양,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10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AINOS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제 15회 AINOS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11월 16일(토) 오후 6시 30분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KCBN 30주년 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윤세웅 목사) 30주년 감사의 밤이 오는 11월 18일(월) 저녁 6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예배 후 만찬과 기념품이 준비되며 좌석배치를 위해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718)463-1700

뉴욕 뉴저지 교협 임원진 발표

제 46회기 뉴욕교협과 제 33회기 뉴저지교협이 임원단을 선임하고 출범했다. 양대 교협 회장단 이취임식은 뉴욕교협 11월 17일, 뉴저지교협 11월 14일 각각 열린다.

뉴욕교협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제 46회기가 임원 선정을 마치고 분기별 행사 일정계획도 확정했다. 행사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며 다만 5월 19일 교협창립 46주년 기념 UN세미나 및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와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를 목요일부터 나흘간 EM과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뉴욕교협 46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시무교회. △회장: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네교회) △평신도부회장: 손성대 장로(퀸즈한인교회) △총무: 이창중 목사(뉴욕동서교회) △서기: 문정웅 목사(뉴욕주나목교회) △부서기: 정대영 목사(퀸즈동부교회) △회계: 박정오 목사(뉴욕한마음장로교회) △부회계: 안경순 목사(

뉴욕은혜사랑교회). 수석협동총무: 김신영 목사(좋은목자장리교회).

뉴저지교협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 제 33회기 임원 명단이 발표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시무교회.

△회장: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 △부회장: 최준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부회장: 배광수 장로(연합감리교회) △총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 △사무서기: 김대호 목사(산돌교회) △기록서기: 서정학 목사(하회커뮤니티교회) △사무회계: 김근출 장로(오늘의목양교회) △기록회계: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

한편 33회기는 11월 14일(목) 이취임 및 임실행위 시무예배를 드린다. <유원정 기자>

Let's Go Together, 서번트 리더십 구축!

뉴욕교협 제33회 정기이사회, 새 이사장 김영호 장로

뉴욕교협 제 3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4일 저녁 7시 30분 플라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새 이사장에 김영호 장로를 선출했다.

이사장은 부이사장 3명 중 대의담당을 선출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회기 대의담당 부이사장 백달영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의담당 김영호 장로가 선임됐다.

김영호 신임 이사장은 "뉴욕교협의 옹구리(이사회)로, 주신은혜대로 열심히 봉사하겠다"며 "여러 이사들의 사랑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선출소감을 밝혔다.

저녁식사 후 진행된 회의는 이사장 손성대 장로 사회로 직전이사장 김주열 장로 기도 후 시작됐다.

이사회는 교협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후원했다고 사업 보고를 했으며 재정지원은 신년하례 만찬과 회장/이사장 이



뉴욕교협 제33회 정기이사회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취임식, 신유집회, 성령화대회,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45회기 재정보고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재정은 총수입 18,971.79달러, 총지출 18,598.95달러, 잔액 372달러로 보고됐다.

34대 신임이사는 12명으로 정권식 장로(후리심제일교회), 이보춘 장로(뉴욕초대교회), 민재기 장로(뉴욕센트럴교회), 배상규 장로(후리심제일교회), 남

태현 장로(프라미스교회), 최형룡 권사(뉴욕그레잇네교회), 감시알 권사(뉴욕그레잇네교회), 박창조 집사(뉴욕그레잇네교회), 김희재 집사(뉴욕그레잇네교회), 이동인 집사(뉴욕그레잇네교회), 박창근 집사(뉴욕그레잇네교회), 김영일 집사(뉴욕그레잇네교회) 등이다.

이날 신안건으로는 임원단 및 조직은 김영호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 손성대 장로와 김주

열 장로 3명이 모임을 갖고 인선하기로 했다.

감사는 직전 이사장이 자동선임되는 법에 따라 김주열 장로가 맡게 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 예배 말씀은 교협회장 양민석 목사가 전했다.

양 목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마20:25-2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질랜드 양치기들의 지혜를 소개하며, "교협과 이사회가 함께 연합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번 교협 포어도 Let's go together로 정했다"고 말했다.

양민석 목사는 "교협이나 이사회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첫째, 기도의 서번트 리더십 둘째, 재정의 서번트 리더십 셋째, 소문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며 이사회의 후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예배는 김영호 장로 인도로 기도 백달영 장로, 성경봉독 김요한 장로, 말씀과 축도 양민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센트럴교회 이웃초청 가을음악회에서 엘리야남성중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뉴욕센트럴교회 이웃초청 가을음악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주최한 이웃초청 가을음악회가 지난 3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기독시인 김현승의 시 '가을의 기도'를 소개하며 "사색의 계절을 맞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성경만이 그 답을 말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구원로의 초청을 했다.

김 목사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지 않으셨으며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아담과 하와와 죄로 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이는 어떤 노력으로도 치유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영적기도를 인도했다.

곽병국 장로의 지휘와 문정원 권사의 반주와 함께 엘리야

남성중창단(단장 신준호)의 공연으로 진행된 음악회는 HCHS Hunter북팀의 삼고무를 시작으로 Hallelujah to the Saints, On to Higher Ground, 사랑하는 나의 주, 주기도에 이어 김재열 목사의 환영 메시지가 있는 후 He Looked Beyond My Fault,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바위섬, New York, New York 등을 불렀다.

또 앵콜곡으로 웨딩케의 등을 참석자들과함께 불렀다.

뉴욕센트럴교회 엘리야 남성중창단은 1998년 창단돼 찬양을 통한 전도와 선교로 지역 사회 봉사 등을 해왔으며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등을 열었으며 정기적 예배 찬양을 비롯 교회음악회와 다양한 초청공연을 해오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8일(주일) 오후 4시에는 뉴욕센트럴교회, 14일(토) 오후 5시에는 Purchase 칼리지 공연장에서 초청기도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5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이사장 송윤섭 장로, 활성화 다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5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회 제 25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4일 저녁 5시 교협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예산 및 결산 정관 수정 등을 통과시켰다.

이사장 이주익 장로의 사퇴로 인해 임기완료 전 새 이사장에 선임된 송윤섭 장로는 "이사회는 대표와 사무총장이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며 "7명의 신규이사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장로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총수입 137,337.68달러, 총지출 96,224.38달러, 잔액 41,113.30달러로 회계보고 했다.

또 2020회계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41,113.30달러)을 포함시켜, 책정된 123,500달러와 함께 수정해 통과시켰다.

2019년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및 행사는 △SHSAT 폐지에 관한 간담회 △Career Forum

△진학상담 세미나 △목회자컨퍼런스: 가정폭력 대체방안 △농구대회 △SAT △유스 할렐루야대회 △청소년센터 후원을 약속 등으로 보고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특히 농구대회는 처음으로 실내경기로 진행돼 호평을 받았으며 SAT는 2020년에는 모차르트 학원과 연결해 전문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관수정은 개정위원(김홍석 목사, 최호섭 목사, 박정규 장로)에서 수정된 사항을 최호섭 목사가 설명했으며, 수정내용은 전반적으로 실제 업무에 관한 구체적 명시 사항과 특히 인사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다.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황영송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훈 목사, 설교와 축도 양민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Together"(전4:9-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청소년센터와 교협은 한 가족이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서로 도우며 뉴욕교계에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황제 펠린이 남극의 흑한을 허들링 방법을 통해 이겨나가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양 목사는 "개 교회나 타 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좋은 짝관이 돼 서로 존중하며 좋은 업적을 남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만사회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센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일 이뤄가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셋세마네교회에서 10월 정기예배를 하고 2019년 후원자의 밤(12월 1일)과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건축후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1부 예배는 한준희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 설교 이지용 목사, 합심기도 인도 박이שראל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지용 목사(뉴욕셋세마네교회 담임)는 "다윗의 신앙"(삼하 16:1-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다윗의 피난생활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며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시므이의 저주)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또 요셉의 경우를 언급하며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며 "십자가에서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양과 싸운다면 대학생이 유치원생과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어려움을 반목, 질시, 원망 가운데 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기 기원했다.

2부 회무는 사무총장 박이שראל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사역보고가 있었으며 9월말 후원비 및 회비납부 상황을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신입 단원 환영식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관 장로) 신입단원 입단 환영식이 10월 29일 저녁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장로성가단에 가입한 신입 단원은 김동식 장로와 강현석 장로 등 2명이다.

새로 입단한 2명의 장로는 뉴욕장로성가단에서 주는 단복, 단 뺏지, 악보 및 바인더와 명찰, 연혁과 단 조직, 사업계획서, 회칙 등을 전달받고 환영행사와 더불어 단원들과 친교를 나누었다.

단장 김재관 장로는 "단원배가운동을 통해 2019년 전반기에 8명의 장로가 입단했다. 이어 후반기에도 오늘 2명의 장로가 입단해 뉴욕장로성가단 부흥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국내외와 세계를 향한 찬양복음 사역을 원하시는 장로님은 언제든지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718)309-3248 총무 송윤섭 장로, (917)763-0999 단장 김재관 장로

<9면에서 계속> 개국 5주년을 맞아 5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복음사역과 향후 계획 및 비전을 설명했다.

△세계찬양대합창제(Global Choir Concert): 2016년, 2018년 카네기홀 세계찬양대합창제를 통해 수익금 총5만8,000달러를 불우이웃에게 전달/2020년 5월 2일 비엔나 광장 찬양제 스주일을 성수하는 성지순례: 2019년 2월 24일(주일저녁)부터 3월 2일(토)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초대교회, 종교개혁 발상지 순례 등 진행 △스마트 폰 강좌와 컴퓨터강좌: 2009년부터 총90회기 실시/개인강좌와 공개강좌, 교회순회 스마트 폰 강좌 등 지속하며 교회 음향 장비교육 및 상담, 건강세미나, 교회합창세미나 개최.

문 목사는 "미디어융합시대에 발 맞춰 종이신문인 기독교뉴스, 인터넷신문, 기독교뉴스닷컴,

인터넷방송, SNS(카톡·유튜브) 등의 미디어융합을 통해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며 "이번 방송국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유튜브 전문촬영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신규 유튜브를 교육, 양성하고 전문 유튜브들에게 불우이웃에게 전달/2020년 5월 2일 비엔나 광장 찬양제 스주일을 성수하는 성지순례: 2019년 2월 24일(주일저녁)부터 3월 2일(토)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초대교회, 종교개혁 발상지 순례 등 진행 △스마트 폰 강좌와 컴퓨터강좌: 2009년부터 총90회기 실시/개인강좌와 공개강좌, 교회순회 스마트 폰 강좌 등 지속하며 교회 음향 장비교육 및 상담, 건강세미나, 교회합창세미나 개최.

문 목사는 "미디어융합시대에 발 맞춰 종이신문인 기독교뉴스, 인터넷신문, 기독교뉴스닷컴, 인터넷방송, SNS(카톡·유튜브) 등의 미디어융합을 통해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며 "이번 방송국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유튜브 전문촬영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신규 유튜브를 교육, 양성하고 전문 유튜브들에게 불우이웃에게 전달/2020년 5월 2일 비엔나 광장 찬양제 스주일을 성수하는 성지순례: 2019년 2월 24일(주일저녁)부터 3월 2일(토)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초대교회, 종교개혁 발상지 순례 등 진행 △스마트 폰 강좌와 컴퓨터강좌: 2009년부터 총90회기 실시/개인강좌와 공개강좌, 교회순회 스마트 폰 강좌 등 지속하며 교회 음향 장비교육 및 상담, 건강세미나, 교회합창세미나 개최.

문 목사는 "미디어융합시대에 발 맞춰 종이신문인 기독교뉴스, 인터넷신문, 기독교뉴스닷컴,

▲문의: (646)262-1231 이선경 지휘자

가수 선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밀알의 밤, ANC온누리교회 등 3곳서 열려

2019 밀알의 밤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아래 성황리에 개최됐다.

2일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열린 둘째 날 집회는 지난 캠프와 카운트다운 영상소개와 찬양으로 막을 올려 최세형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시편 57:1을 본문으로 "본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한 말씀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 어려움과 환란 중에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고 은혜가 충



밀알의 밤에 초청된 가수 선씨가 나눔의 삶을 살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들려주고 있다.

만한 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밀알수어찬양팀의 찬양은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함께 자리한 강미배 사모(라스베가스 비전교회 강성근 목사부인)는 태어날 때 이분적추증이라는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딸 강라언(이분적추증)의 6번의 수술과 재활 과정 가운데 겪어

왔던 듯한 어려움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딸과 함께 '고백'의 찬양을 들려줘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어 이번 밀알의 밤에 초청된 가수,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단 선(Sean Ro)이 무대에 올라 캠페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아이티, 몽골 등의 어린이들 1000명을 후원하게 된 동기

와 과정을 전하며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선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나눔의 아이콘이자 기부천사로 불리며 캠페션 홍보대사,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연탄은행 홍보대사, 밥퍼 협력대사 등 여러 재단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과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간증에 이어 자신의 히트 곡들을 들려주며 축제의 분위기로 인도했으며 선과 함께 동행한 가수 최은혜 씨의 찬양 또한 이날의 축제 분위기를 북돋아주기에 충분했다.

한편 금번 밀알의 밤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0년도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오렌지한인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오렌지한인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및 피세원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0일(주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문의: (714)871-8320

전병철 목사 초청 말씀집회

LA반석위예교회(담임 성현경 목사, 2018 Trinity St, LA)는 전병철 목사(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초청 말씀집회를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8일(금)과 9일(토) 저녁 7시30분, 10일(주일) 오전 10시30분.

▲문의: (213)493-4328, (626)676-8038

동문교회 연합 목사위임, 임직예배

동문교회와 연합교회가 동문교회(1901 Beverly Bl. LA, CA 90057)로 연합하고 고귀남 목사 위임예배와 안수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예배를 드린다. 11월 10일(주일) 오후 3시 30분.

▲문의: (213)674-7447, (213)820-0003

LA 통곡기도회

그날까지선교연합(대표 손인식 목사)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공동주최하는 LA 통곡기도회를 10일(주일) 오후 4시 기쁜우리교회에서 열고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고통가운데 있는 탈북자들을 위하여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

▲문의: (818)662-0400



임현수 목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출판감사예배에서 임현수 목사가 저자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북한 바로알고 기도하자

임현수 목사 "내가 누구를..." 출판감사예배

임현수 목사 저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출판감사예배가 10월 28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임현수 목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쓴 이유는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다. 북한 실상을 바로알고 기도를 바로 하도록 돕기 위해 저술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기대 한다"며 "800만 디아스포라들이 저력이 있고 3만 명의 목회자들과 3만명 선교사들이 북한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다. 또한 3만명 정도 되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언어 사용자들 역시 같은 비전을 갖고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세대를 키우고 계시는걸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만명의 탈북자가 있으며 그중 300명 목사이고 신학생들이 200명 가까이 있으며 평양의대출신 신학생들도 있다.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십만 시니어들이 준비돼 통일이 되면 2-3만개 교회가 북녘 땅에 세워질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수치를 벗고 제사장 민족으

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술 목사 찬양인도와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 상임본부장) 사회로 열린 출판감사예배는 권오달 목사(RCA아시아 목회자 증경회장) 대표가 기도했으며 박희민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딤후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호성기 목사(필라란디옥교회)가 "내가본 저자"라는 제목으로 임현수 목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호 목사는 "임현수 목사는 선교가 프로젝트 이벤트가 아닌 삶이었고 예수사랑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 고민하며 사셨다"고 말했다. 그는 "임 목사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고 교제하는 자에게도 섬기기를 힘썼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자"라 말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와 최일식 목사(김빛 상임대표)가 축사했다. 이어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가 저자소개를 했으며 임현수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 축도로 마쳤으며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채플실 뒤편에 마련된 부스에서 저자사인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하늘소망교회 창립 7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통해 새로운 일군으로 세워진 임직자들과 순서를 맡은 분들이 기념촬영

"서로 용납하며,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하늘소망교회 설립7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하늘소망교회(담임 김덕수 목사)는 3일 오전 11시, 설립 7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리며 동원대 장로, 임단 안수집사, 임단나 권사를 새로운 일군으로 세웠다.

이날 감사예배는 찬양팀의 찬양과 김은진 전도사 기도, 김덕수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덕수 목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롬12:4-8)이란 제목으로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고 품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권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서 동원대 장로, 임단 안수집사, 임단나 권사가 세우짐을 공포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강태동

목사(우리하나교회 담임)은 고전3:5-9의 말씀을 통해 "이제 공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축하한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와 성도에게 인정받아 맡겨 현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홍철 목사(LA 산울교회 담임)는 딤후4:7-8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처럼 꼭 기억되는 일군이 되고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설립 7주년을 맞은 하늘소망교회는 1가와 웨스트몰덴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덕수 목사는 생터사역원(여? 성경이 읽어지네) LA 지부장으로 말씀을 통한 부흥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500-294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감코랄 정기연주회에서 단원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고 있다

감옥선교 The Lock Ministry 후원

코리안아메리칸매스터감코랄 제14회 정기연주회

코리안아메리칸매스터감코랄(단장 이수정 이하 감코랄) 제14회 정기연주회가 3일 저녁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공급하며 복음을 전하 신앙으로 세워주며, 갇힌 자들이 놓인 후에도 훈련하고 인도해 완전한 회복과 교회 및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The Lock Ministry(대표 한기영 목사)를 후원하기 위해 열렸다.

음악회는 스티브 황보 장로(라팔마 시의원) 기도로 시작돼 감코랄 단원들이 제갈소망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라', '알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 함께 살리라', '목수리 날개와 같이'를 불렀으며 이수정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터기행진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매끄러운 돌', '날 사랑하심' 등을 불렀다.

이날 박트리오가 찬조출연해 공연을 빛내주었으며 재즈 보컬 제이미리 씨와 팡페라 테너 최원현 씨가 곡중 솔로와 듀엣을 하며 공연의 감동을 더했다.

(박준호 기자)



전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고 김(오)재섭 사모 천국환송예배에서 고인의 장녀 김수연 씨가 약력을 말하고 있다

고 김재섭 사모 천국환송예배

미주크리스천신문 초대발행인 고 김순명 목사부인

미주크리스천신문 초대 발행인 고 김순명 목사 부인이자 전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고 김(오)재섭 사모 천국환송예배가 5일 오전 11시 로즈힐 메모리얼파크 스카이로즈채플에서 열렸다. 양수철 목사(KAPC 총회장/에버그린선교회 담임) 집례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조격 목사가 기도했으며 나중길 장로가 조가를 불렀다.

이어 양수철 목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계 14:12-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고인의 장녀 김수연 씨와 차녀 김수옥 씨가 약력 소개, 고인의 장손녀 이재은 양과 차손녀 김은영 양이 조사했다. 이어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예배는 권혁

빈 목사(씨드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천국환송예배 이후 열린 하관예배는 양수철 목사 집례로 열렸다.

고인은 1937년 8월24일 제주도에서 출생, 59년 서울사범대를 졸업했으며 62년 12월 8일 김순명 목사(과거)와 결혼했다. 78년 도미, 83-95년 기독교서적센터 운영, 83년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 92년 동 신문사 사장 역임했다. 고인은 92-2019년 에버그린선교회에 출석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가족으로는 장남 김동조 목사, 장녀 김수연, 차녀 김수옥, 사위 김경래 씨와 손자 4명, 손녀 2명이 있다.

(박준호 기자)



제2회 GCC후원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 2회 글로벌크리스천센터 후원음악회

글로벌크리스천센터(GCC, 대표 김미선 교수)가 주최한 제 2회 GCC 후원음악회가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에서 3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김미선 대표 사회와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기도로 시작된 후원음악회는 오르간연주자 이호준 박사가 오르간 연주를 했으며, 이은미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다. 하프연주자 폴린홍, 그레이스홍, 바이올리니스트 권대솔, 소

프라노 제이미김, 테너 전승철, 마림바 연주자 크리스티나천, 밸리연합감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지휘 김미선 교수)가 무대에 올라 은혜롭고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다.

이날 음악회는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를 음악회에 참석한 출연자들과 청중들이 함께 부른 뒤 조선헌 목사(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새생명비전교회 설립10주년 기념음악회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설립 10주년 기념음악회가 1일 저녁 7시 30분에 열렸다.

문지현 권사 사회, 방재철 장로 기도로 시작된 기념음악회는 여성삼중창, 피아니스트 홍지현, 그레이스리, 강은희, 테너 최원현, 소프라노 김혜성,

NLVC남성중창단(지휘 김경태), 박트리오, 한인기독교합창단(지휘 김동근), 새생명비전교회 연합성가대가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강준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 선교 절벽 직면” 대안 찾기

KWWMF ‘한인세계선교사대회’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내년 7월 한국에서 열린다. 1977년 시작된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KWWMF) 최근봉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기자를 만나 44년 만에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된 이유로 위기의 한국교회를 꼽았다. 그는 “한국교회는 절벽이다. 교회도 선교도 모두 어렵다”며 “우리가 모여 반성고 성찰, 통찰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16차 대회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KWWMF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2만7500여명

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선교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77년 선교사 일곱 명이 한인선교사친교회란 이름으로 시작해 85년까지 비정기적으로 다섯 번의 선교사 대회를 진행했다. 88년부터는 미국 내 한인교회와 선교사 모임인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한인세계선교대회’와 함께 4년마다 개최했다.

대회 준비위원장인 김수길 선교사는 “미국 시카고에서만 여덟 차례 열렸고 2016년 15차 때 장소를 옮겨 LA 아주사파시 픽대에서 개최했다”면서 “내년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KWMC 대회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WWMF가 선교사대회를 한

국에서 열기로 한 데는 한국교회가 ‘절벽’ 끝에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최 회장은 “2만 7000여 한인 선교사들이 이 대회에 모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선임 선교사들이 다수 참석한다”면서 “그 특성을 살린다면 한국 선교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사는 7월 6-9일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사역하는 2000여명의 선교사가 모인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하고 세계 선교 동향 등을 공유한다. 5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국교회와 선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라는 점에서 외부 강사

의 도움은 받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선교사, 목사들을 강사로 세울 예정”이라며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일정 중에 차기 회장단 4명을 선출하는 등 새 임원단도 구성한다.

앞서 7월 3-6일엔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을 위한 MK대회도 진행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1000여명의 MK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대는 장소부터 숙박, 식사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후원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한국교회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천지 본부는 2016년부터 한족뿐 아니라 다렌시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포교 활동을 해왔다”면서 “그 결과 다렌시는 베이징 다음으로 신천지의 큰 거점이 됐다”고 폭로했다.

박 목사 등 한·중 목회자들은 지난 7월 라오닝성 종교교 위원들과 만나 신천지 등 현지 이단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신천지를 사교(邪教) 및 불법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포교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다렌시 신천지교회는 해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다렌시의 이번 결의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교회와 중국 현지에 이단 상담사를 양육해 이단에 빠진 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국 내 이단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서, 복음서와 서신서, 계시록으로 구성된 모든 성경을 읽는 행위가 결국 기독교인을 만들어나간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이 성경 없이 기록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카슨 교수는 “성경으로 신자가 기록하게 되는 건 이미 예수님으로 증명된 방법”이라며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치유와 약속, 부활,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알려준다. 시대를 거슬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여러분의 기록이, 이웃과의 관계가 여기에 달려 있다”며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면 누가 진정 어리석은 자들인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다. 무조건 삶을 즐기려는 귀족, 면죄부를 받았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개념을 입에 담은 철학자들, 이상한 규칙에 매어있는 자들, 자신에게 주어질 사명보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능숙한 자들 모두 진정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일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했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을 배워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강함을 드러내거나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연약 가운데 드러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교회의 개혁이란 각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올 교단 여성총대 수, 줄거나 그대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현황 공개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연·회장 정연진)는 30일 ‘2019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 여성의 제안’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차별과 배제 없는 공의로운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여연은 또 올해 각 교단 여성 총대 현황(표 참고)을 공개하고 한국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위드유’(#WithYou·피해자와 함께하겠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실질적인 여성 총대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104회 총회에서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총회장이 선출된 것이 그나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예장통합은 그러나 지난해 패송된 여성 총회대의원(총대) 비율이 2.1%에서 올해

1.7%로 감소했다. ‘여성총대할 당제’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해석한 결과다. 또 ‘성폭력대응지침서’를 제작해 교회와 노회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구성원이 총대로 참여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현의해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 위원회는 올해 개정안에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준회원 진급 및 고시, 정회원 연수, 장로 연수 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결의했으며, 법안에 대해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여성 총대 수 변동은 없었다. 기독교한국 루터회는 지난해 대비 전체 총대 수가 감소했고, 여성 총대 수는 소폭 증가했다.

기감 2대 개혁입법 ‘모두 부결’

금권선거 막기 위해 상정한 추첨제 등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가 선거 개혁을 위해 상정한 추첨제(제비뽑기)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추첨제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함께 대표적인 개혁 입법으로 꼽혔으나 입법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입법위원회를 진행 중인 기감은 30일 경기도 안산 품의교회에서 찬반 의견과 기감 본부 법률자문단의 자문까지 청취하며 신중하게 안건을 다뤘다.

찬성하는 회원들은 금권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회원은 “기감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추첨제”라면서 “소송의 수렁에서 이제는 빠져 나오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밝힌 회원은 “직접선거와 추첨제를 섞어 놓으면 투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불법 선거운동을 막자”고 주장했다.

장개위가 입법위원회에 상정한 안은 감독회장(감독)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권자 1인당 3명을 투표한 뒤 득점자 3명을 두고 추첨을 한다는 것이었다. 입후보자가 3명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추첨하도록 했다.

기감 개혁그룹인 ‘새물결’ 동부연회 총무 홍성호 대관대교회 목사는 “입법위원회 회원들이

개혁안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게 걸림돌이었다”면서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개혁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부결돼 아쉽다”고 했다.

관심을 끌었던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신설됐다. 위원회는 장로와 목사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교단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도 찬성 쪽이 많았다. 백상현 장로는 “암을 도려내면 상처는 남아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성폭력대책위도 암 덩어리는 도려내는 첫 출발점으로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건 우리들의 딸과 며느리, 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미숙 목사는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교단들도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감이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신설하자”고 당부했다.

기감 산하 감리교신학대와 목원대, 협성대 등 3개 대학을 교회들이 지원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장로연합회를 신설하는 건 개정안도 부결됐다.

대통령 하야운동 50만 서명 전달?

여의도순복음교회, ‘잘못된 주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위임목사)는 “최근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운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동참하고 50만명의 서명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교회는 이날 당회 및 성도 일동으로 해명서를 내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에서 진행되는 동성결혼 반대운동에 동참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0만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 목사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61년 동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선교)와 교육 봉사, 소

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왔다”며 “전통 복음주의 입장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을 혼돈케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교회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이념 대립으로 나뉘어진 한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곧 광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들어온 신천지 때문에 가정파탄”

중국신천지미간괴해자대책위 국내이단관련단체와 합동 기자회견

중국인 핼레이제씨는 아내 쥘리쥘씨가 한국에서 넘어온 이단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핼씨는 지금의 아내와 2014년 결혼했다. 당시 아내는 기독교인이었다. 아내는 부모에 대한 효심도 깊었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후 고향을 떠나 중국 장쑤성 양저우에 거주한 지 3년이 흐른 2017년 말, 한 신천지 신도가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면서 가정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신천지 신도를 따라 기독교 모임이라 소개받은 친교 모임에 몇 차례 참석했다. 이후 회사 야근 등을 핼씨로 신천지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성격도 변했다.

사소한 일로 핼씨와 자주 다투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적도 많았다. 아내의 월급 역시 각종 현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빠져나가 은행 잔액이 바닥 난 적도 있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지난 5월 사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아내가 구속되면서 핼씨는 그동안 아내가 신천지의 각종 세뇌교육과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핼씨의 이 같은 사연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린 ‘중국 신천지 민간 피해자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신천지 민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박형택 목사)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가 후원해 열렸다. 다만 핼씨는 기

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핼씨는 한국교회에 전하는 피해 경위서를 통해 “신천지에 빠진 아내는 아이까지 버린 채 가족들의 절규를 모른 척하고 있다”면서 “아내를 구해 달라. 파괴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또 “중국에 침투한 신천지는 개인과 가정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신천지의 해악성을 고발했다.

박형택 목사는 “현재 신천지 JMS 통일교 등 많은 한국 이단들이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면서 “이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바울(가명) 목사도 “신천지가 중국 현지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해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문근 목사(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는 중국 라오닝성 다렌시의 신천지 활동 현황을 소개했다. 현 목사는

“기독교인, 성경 반복해 읽을수록 겸손해진다”

DA 카슨 트리니티신대 명예교수, TGC코리아 콘퍼런스 강연

“기독교인의 마음에 겸손을 심으려면 성경을 반복해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해지긴 쉽지 않습니다.”

저명 신학자 DA 카슨(73)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명예교수는 1일 성경이 기독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카슨 교수는 이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담겼다. (성경을 읽으며) 그분 옆에 서게 되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라며 “성경 읽기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카슨 교수는 지난 30일부터 2박 3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주제로 열린 ‘2019 TGC코리아 콘퍼런스’ 강연차 방한했다. 북미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현재 미국 TGC(The Gospel Coalition, 복음연합) 대표로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으로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의’ 등 저서 60여 권을 펴냈고 이단 콘퍼런스에서는 ‘말씀 계시의 중심성’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설교하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란 3가지 주제로 강의했다.

카슨 교수는 ‘말씀 계시의 중심성’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1913~2003)와의 만남을 예로 들며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년 전 칼 헨리 등 유명 신학자를 트리니티신학대학원 강연자로 초대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적지 않은 시니어 크리스천이 냉소적이고 업적만 인정받길 바란다. 80대임에도 당신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비결이 무엇인가.’

이때 칼 헨리가 ‘그 누가 십자가 옆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콘퍼런스에서는 ‘말씀 계시의 중심성’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설교하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이란 3가지 주제로 강의했다.

“남북 정세 상관없이 통일 선교운동 지속해야”

김영식 목사, 슈빌리통일구국기도회 기도·연합 사역 강조

“남북 정세에 따라 선교 활동이 요동친다면 하나님 나라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세에 상관없이 꾸준한 통일 선교 운동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와 통일을 통한 한반도 복음화가 주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흔들림 없는 북한 및 통일 선교 운동이 강화돼야 합니다.”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크로스로드 세미나실에서 열린 슈빌리통일구국기도회(슈빌리·상임위원장 정성진 목사) 제16차 통일워크숍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워크숍 주제는 ‘성숙한 연합을 통한 더 큰 통일선교 공동체’이다.

기도 발제를 맡은 김 목사는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엔 통일

구국기도회 행사 횟수가 증가하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성도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결국 기도회 중단 사례를 현장에서 목격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사회와 종교단체, 한국교회 등이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회의 모임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 자기 견해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소위 보수와 진보 틀 속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회의 사역도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 양극단의 생각을 다 떼어내고 중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서로 마음을 조화롭게 화해하는 사회 태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새 포도주의 시대이다. 이를 담아내기 위한 새 부

대의 형성은 기존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 공통분모가 되는 사역을 함께 도모하는 분위가 조성되어야 한다.

중세교회...

〈7면에서 계속〉

물론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에라스무스는 이탈리아에서 3년을 지낸 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신예찬’을 작성했다. 그가 사귀었던 영국의 헬라문화 연구자이자 풍자 문학의 대가 윌리엄 그로신(William Grocyn, 1446-1519)처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유머로 진리를 말하려고 했다. 그는 ‘어리석음’으로 분장한 여신 모리아(Moria)를 통해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인생은 원래 어리석기에 근심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

선교의 창 (13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해와 선교 전략

라틴아메리카는 안녕한가? 그렇지 못하다. 아름다운 광활한 대륙에 무슨 일이 있어왔는가? 유럽 국가들의 지배와 착취, 흑인노예들의 비극, 혼혈로 인한 종족형성 및 노동착취 등으로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도 식민 역사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냉전이후 반미성향의 정치적 혼돈, 빈부격차의 심화, 미약한 경제구조, 높은 실업률과 이자율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마약과 갱단들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철새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고 있다. 여기에 가톨릭의 생명력 없는 종교행위와 해방신학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라틴권을 향한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요구된다.

문화적, 역사적 공통의 배경에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위키백과(wikipedia) 자료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는 중미, 카리브 및 남미지역을 포함하며 위도 상으로는 북위 32도와 남위 54도 사이에 위치한다. 대륙의 총면적 약2,055만km²로서 전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33개 독립국과 남아메리카 북동부 및 카리브 해의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령 식민지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중남미의 인구는 약 6.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한다. 라틴권에는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 5개의 언어가 있다. 그중 18개 나라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는 라틴 전체 면적의 56%,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중남미 대부분 나라들은 유럽 식민지(殖民地)에서 해방되어 독립국이 되었다.

2. 혼합문화의 땅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는 토착민의 인디오 문화와 식민자

의 이베리아 문화 및 수입노예의 아프리카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인디오 문화가 우세한 지역을 인도-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아스테코 문명과 잉카문명을 낳은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산지가 그에 해당된다. 이베리아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을 유로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다수의 유럽인민을 받아들여서 발전해온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지를 말한다. 그곳에서는 인디오 문화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도 남(南)유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을 아프리카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주로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흑인노예가 수입된 카리브 해 주변 및 브라질

3. 선교적 동향

Operation World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에는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톨릭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후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개신교 선교활동에 강하게 반발하던 편협한 전통주의는 기울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로써 금성철벽(金城鐵壁) 같았던 천주교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개신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개신교가 지난 수십 년간 급성장했음을 심심치 않게 보도해왔다. 카리브 해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에만 개신교 인구가 5천5백만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2000년도의 Johnstone의 자료를 참고하면 세계 복음주의

난다는 것이다.

4. 한인교회의 선교 방향

가톨릭 배경과 스페니시가 주류를 이루는 동일 문화권에 요구되는 선교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적 성격에 따라 고감한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교단과 파송단체의 벽을 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 차원에서 시너지 창출형의 선교 파트너십을 구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둘째, 현지 한인교회가 선교적(Missional Church)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각 나라와 종족 가운데 심겨진 한인교회가 게토(ghetto)를 형성해서는 아니 된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엄청난 선교적 사명이 있음

적으로 동원되도록 격려하며 이끌어야 한다. 기차의 머리부분인 동력차 역할을 의미함이다.

셋째, 현지 선교사와 한인교회들은 북미주의 여러 단체와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엮어야 한다. 적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함포사격이나 폭격기의 지원이 있으면 막힌 곳이 뚫리게 된다. 북미주에는 약 4,700개 한인교회가 있다. 선교에 목말라 있는 이 교회들에게 출로를 활짝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맺음 말

라틴아메리카는 안녕하지 않다. 경제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인 불안 요소 때문이다. 더구나 60%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의 명목상의 신앙인들이다. 토착 인디오의 전통요소와 혼합된 사이비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가 저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간 기독교 선교는 아프리카와 중동권과 아시아 중심이었다. 특히 한인세계선교에 있어서 중남미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곳은 가톨릭배경이었던 뿐만 아니라 거리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그러한 연고로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는 약 300가정, 대략 6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한국에서 하되 중남미는 미주한인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이미 라틴권에서 자리잡고 있는 선교사와 한인교회들이 북미주 한인교회들과 선교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1. 일반적 상황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는 중남미라고도 부른다. 이 지역은 북미의 '앵글로색슨(Anglo-Saxons) 아메리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드라마 신약 (8)



김덕수 목사 (센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시간에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임성하시는 장면부터 월요일에 성전을 다시 정화하시는 장면과 화요일에 유대신학자들과 신학논쟁을 하시는 현장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강론들(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강론)과 체포되시어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거저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종말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일주일(2)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십자가까지

화요일 신학논쟁 이후 감람산 강론(마24-25장)

화요일 유대신학자들과의 신학논쟁에서 그들을 KO패 시키시고 나니 시간은 오후 해질 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감람산에 오르실 때 석양에 비치는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슬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 뿐 아니라 나라 앞으로 종말의 때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마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깨어서 기다리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시면 모든 사람을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양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염소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감람산강론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 계시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람산강론을 '약식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감람산강론 이후 시간과 장소는 목요일 저녁 다락방으로 옮겨집니다.

목요일 다락방 및 포도나무 강론과 대제사장적 기도(눅22:1-34, 요13-17장)

예수님께서 수요일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장소는 목요일 저녁

다락방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였고, 음료를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중엄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뭇 다릅니다. 누가 크냐로 다툼이 일어납니다(눅22:24).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받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다시 만찬은 이어지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은 후 예수님을 신고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나갑니다.

유다가 나간 후 본격적인 다락방강론이 시작됩니다. 다락방강론은 '예수님의 떠남'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요13:33). 떠나시는 주님을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임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들인데, 어찌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과의 대화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를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다락방 강론은 끝이 나고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시며 겔세마네 동산으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이동하시는 중에 한 포도나무 앞을 지나가시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를 포도나무를 시청각교재로 사용하시며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포도나무강론(요15-16장)입니다. 역시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요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체포당하시고 4번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대제사장적 기도 후에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로마 병사들과 장로들의 하숙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밤새 4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먼저 안나스와 가야바의 재판을 산헤드린공회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피의자로 세운 그들의 기소내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거저 증인들을 세우려 했으니 여의치 않았습니까. 증거불충분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심문하며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맞다.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백을 받은 그들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군중들로부터 받을 지탄이 부담스러웠고(눅22:2), 또 다른 이유는 로마 법으로 죽어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굴레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의 무리들이 기소를 합니다. 기소의 내용은 "예수가 자신을 왕이며 그리스도라고 했다"(눅23:2)는 것입니다. 기소의 내용이 '신성모독'에서 '정치범'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왕이냐?"(요18:33)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권(요18:36-37)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말했기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이관한 것입니다. 마침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관저에 와 있던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한 마디도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 오셨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최종 십자가형을 확정하고 예수님을 끌고 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제3(요20: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를 지켜 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막15:39) 그리고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요19:19)이라고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갈릴리 사나이들이 예루살렘교회를 개척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는 성경 (42)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Matthew 1:20,21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NIV 1984)

WORD & IDIOM

* consider: 깊이 생각하다 * appear to A: A에게 나타나다 * be afraid to+(V) ~: ~하기를 두려워하다 * conceive: 임신하다, 잉태하다 * give birth to a son: 아들을 낳다 * be to+(V) ~: ~해야 할 것이다 * save A from B: B에서 A를 구원하다

GRAMMAR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주님의 한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 <after he had considered this>에서 (this)는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은밀하게 단절하고자 작정한 것을 가리킨다(18,19절). * <had considered>는 과거완료형으로 여기서는 주의 한 천사가 나타났던 때보다 앞선 과거의 시제이다.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다윗의 아들 요셉아 두려워 말라 메리를 집에 데려 오기를 너의 아내로서 =>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너의 아내로(서) 메리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 <to take Mary home>는 <To+부정사>구이다. <To+부정사>는 명사적(~ 하는 것), 형용사적(~ 할), 부사적(~ 하기 위하여) 등의 기능을 갖는다. 이 문장에서는 <do not be afraid>의 목적어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즉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준다.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왜냐하면(what ~이하기 때문이다) 그녀 안에 잉태된 것(아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그녀는 아들에게 출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야 할 것이다. =>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될 것이다.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왜냐하면(he 이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에서 <are to + give>는 <Be to>용법, 즉 예정, 금지, 가능, 의무, 의도, 운명, 작정 등의 의미 중 맥락에 따라 해석을 한다. 여기서는 작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STUDY & THOUGH

- 본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졌는데 이는 그 이름이 신적인 기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친 아버지 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 21절 끝 문장 즉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에서 말하는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자연적 재난이나 위험, 정치적 억압, 또는 가난이나 질병 등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지나친 사회복음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The origin of Jesus is not man, but Go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참 경건의 원천(약1:26-27)찬347장

본문의 참 종교란 경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바른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26). 무엇보다도 말이 절제로 경건이 나타납니다.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는 외식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환난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곧, 환난을 당하는

때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역은 참 경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인간적 동정에서 출발한 것은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건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27). 경건의 사람이 됩시다.

화 차별을 금하라(약2:1-4)찬403장

참 경건은 의와 공평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집의 터전이나 골조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그 백성의 생각과 모든 생활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은 반드시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신자가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삶의 태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대조적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2-3). 외형의 아름다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불의이기 때문에 금하라고 가르칩니다(4).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복이 임합니다. 이 경건으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다(2-3). 외형의 아름다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불의이기 때문에 금하라고 가르칩니다(4).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복이 임합니다. 이 경건으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수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약2:5-9)찬133장

두 가지 계명 곧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된 율법은 참 이웃사랑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옵니다(5-6).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일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마음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만이 이 사랑을 이룹니다. 둘째, 최고의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8). 율

법의 613조항이 모두 이웃사랑으로 요약된 것은 그 뿌리가 의와 인과 신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마23:23).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9). 이웃을 차별하는 마음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목 자유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약2:10-11)찬411장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의 참 자유는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두 지켜야 합니다(10-11).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이 요구하는 의인신을 이뤄야만합니다. 시간과 공간

에 따라 그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항상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두, 항상 지켜야 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유에 이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며 구원의 생활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금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약2:12-13)찬197장

자유는 복음이란 복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자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의식으로 말하고 행합니다(12). 둘째, 적극적인 긍휼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13).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긍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창조나 재창조에 어두움을 품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창1:2). 우리는 그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긍휼이 온갖 문제를 이깁니다(13). 하나님의 정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긍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로만 이깁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생활에 나타내려할 때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토 행함없는 믿음이란?(약2:14-17)찬499장

바울의 이신득의의 가르침은 야고보에 와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은 언제 행함없는 믿음을 요구하고 행함없는 믿음이나 믿음없는 행함을 경계합니다. 행함없는 믿음이란? 첫째, 현실에 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14). 믿음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 역시 반드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외식으로 떨어집니다

(15-16). 말로는 온갖 것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외식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힘쓰는 것이 신자의 할 일입니다. 셋째, 죽은 것입니다(17). 생명이 없는 믿음은 생명을 낳을 수 없듯이 참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그 뿌리인 믿음의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화장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잠언서 지혜만으론 부족하다!

CT, 십자가 안에서 지혜의 유익 강조

크리스천리티투데이 편집장 마크 켈리는 항상 짙은 사색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그는 재정적 부요함이나 건강의 축복 등 성공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변영신학 설교자들

들이 선포하는 '지혜'는 불충분하다고 잘라 말한다. 교회공동체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Pep Talks For Successful Living").

최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복음주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이 들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좋게 봐서 시련이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돌과 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처한 상황에 대해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을 기회 삼아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 말을 듣자 문득 궁금해졌다. '오스틴 목사가 설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휴스턴의 목사인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은 주로 신랄한 비판이었다. 그래서 이참에 그의 설교를 몇 개 찾아들었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스틴 목사는 그보다는 자주 맞는 말을 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소위 '변영복음

설교자'라는 몇몇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굳건한 부부관계나 자녀양육, 고통의 문제에 관한 지혜로운 조언을 자주 들려주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경을 만났을 때 침착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자주 했다.

물론 신앙과 금전적 번영을 넘나들며 연계할 때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가끔 그랬다. 대개는 성경적 지혜와 심리학적 지혜를 버무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중에게 제시했다. 아니면, 역사학자 케이트 보울러가

그러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주류 복음주의 교회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리 문제가 많아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교회들의 웹사이트를 둘러보면 관계개선, 자녀양육, 직장에서의 신앙생활,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하는 삶에 대한 비슷비슷한 설교시리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용적이고 괜찮은 조언들이 많은데, 대개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잠언이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에 대한 상식적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과 선생들이 진리를 전부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전부를 이해할 수 없다.

잠시 들르는 휴게소가 아니다. 고통 역시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 역경도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잠언의 지혜에 치우친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만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며,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견디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다.

반면 십자가의 신학은 고통의 이면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죄 용서는 십자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십자가의 지혜"(고전1-2장)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평범한 지혜를 넘어서는 이토록 엄청난 메시지, 곧 사람들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실재에 두 발을 디디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목격 그 자체로 제시하며, 우리를 불러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을 보여주는 메시지(요12장)를 지닌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 그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인 지혜를 나누는 일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쓰고 공을 들이는 걸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어리석음... 변영신학 설교자들의 불충분한 지혜 아닌 '십자가 지혜'

"축복: 미국 번영복음의 역사 (Blessed: A History of the American Prosperity Gospel)"에 쓴 대로, 번영복음 설교자들은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 조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중 대다수 조언들은 많이 팔리는 심리학 서적이거나 자기계발 강연,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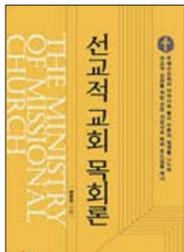
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거나 사업에서 성공하고 고통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있는 철학적 요소 한 손가락과 저기 있는 심리학적 요소 한 손가락만 더하면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인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잠언은 전체 지혜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지혜는 욕기와 전도서, 골고다 언덕의 예수에 있다. 지혜의 다른 부분, 곧 더 깊은 지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중심을 둔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에

책 소개

"선교적 교회 목회론"

저자 배현찬 목사



메릴랜드 주 예수교회 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 예수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이론과 실례를 나누며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전략 지침서로 목회 로드맵을 제시'한 저서 "선교적 교회 목회론"(The Ministry of Missional Church)을 최근 콤팩트판에서 출간했다.

배현찬 목사는 "사회선교는 이렇게"(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라는 저서를 출간 후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봉사'를 비전으로 주 예수교회를 설립하고 20년을 맞이 이 책에 목회리더십을 추가 보완해 개정판을 새롭게 내놓게 됐다고 설명하며, 특별히 목회론적 측면에서 이론과 실례들을 추가했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

책은 발간사와 추천사, 축하

메시지, 권두언, 들어가는 말 이후 본론으로 9부와 나가는 말, 부록 공동체 나눔으로 돼 있다. 책은 1부 다인종 사회와 디아스포라(1장 해외한인 이민사회의 3대 수난사건, 타인종에 대

음식 문화축제), 4부 노숙자들을 위하여(지역 홈리스사역기 과 함께, 먼로 공원급식), 5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보수, 도시생활 개선, 산골 빈민주

리더십 응용 실제), 9부 목회 리더십의 실제(건축의 발자취를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신학생을 양성하며, 안식일을 맞아, 대외봉사를 통하여)로 쓰여 졌다.

신학교 사회봉사상 수상을 축하하는 학장 Dr. Kenneth J. McFayden 축하메시지를 실었다.

또한 북미에서 선교적 교회의 이론을 정립하고 선교적 교회운동을 촉진하고 있는 대럴 구더(Darrell L. Guder, 프린스 턴신학교 명예교수) 교수가 발표한 '선교적 교회: 도전과 기회'를 권두언에 실었다.

추천사는 한국일 장신대원 선교학 교수, 최영근 서울신대원 선교학 교수, 이학준 풀러신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정종훈 연세대기독교사회윤리학 교수, 김세광 서울장신대 신학대학원장 등이 썼다.

총 487페이지.
▶연락처: hyunchanbae@hotmail.com

선교적교회 전략지침서로 목회로드맵 제시

한 편견, 변화하는 다인종 사회와 더불어, 미주한인 이민사회와 다인종 사회, 한·흑관계에서 본 다인종 사회와 교회), 2부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 선교(사랑의 목표와 정의의 방법으로, 킨 목사의 인권운동을 통한 역사적 교훈, 사회선교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3부 인종 화합을 위하여(다문화 음악축제, 한국

택보수), 6부 지역 한인사회를 위하여(2세를 위한 민족의 얼과 뿌리를 찾아서, 노년들을 위한 섬김), 7부 지구촌 곳곳을 위하여(의료 및 교육, 어린이 구호, 협력선교기구와 신학교육 기관 후원), 8부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선교적 교회 사역원리와 리더십,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과제, 선교적 교회 목회

또 각 부 마지막에 실은 사잇 글 중에는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김성국 목사)에 투고했던 "샬롯츠빌 폭동사태를 보면서"와 "다음세대와 더불어 사는 사회선교" 등의 글도 보인다.

또 커뮤니티 섬김에 큰 희망을 준 주 예수교회가 PCUSA교단 내 한인교회 최초로 유니온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